

# 낙첨가



[해제]

<낙뵈가>는 작자 및 제작연대 미상의 가사 작품이다. 단권에 순국문 표기로 이 작품만 필사되어 있으며, 원전의 크기는 20\*22cm이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역대가’라는 작품의 명칭은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보통명사가 되기도 한다. 역대 사적을 읊은 여러 가사 작품들의 총칭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낙뵈가>는 다른 ‘역대가(歷代歌)’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대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사실이나 제왕과 성현들의 사적을 노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상고시대에서 명나라 멸망까지를 서술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역대 사적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이 작품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역대가>(작자·연대 미상, 단권의 사본)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역대가>의 이본(異本)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두 작품에는 없는 사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분량이 늘어난 점이 특히 주목된다. 작품 말미에는 “경조이월 십이일 필서호노라~”로 시작하는 필사기(筆寫記)가 붙어 있다. 1720년, 1780년, 1840년, 1900년 등이 경자년(庚子年)에 해당하는 해인데 이 중 언제 필사된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증할 수 없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본 <역대가>가 1870년, 고려대 중앙도서관본 <역대가>가 1875년에서 1908년 사이에 필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840년에 필사된 작품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원문]

낙대가  
 하늘은 언제나고 쌍은 언제나고  
 란방박 앙알호야 한기운 뿐이러느  
 티극이 어린후의 음양이 논호여서  
 양기논 상승호야 텨문이 이어나고  
 음기논 흥강호야 지리가 숨긴지라  
 슈화금 목토논 니일은 오횡이라  
 오횡이 상승호야 만물을 비저닉이  
 형형 식식으로 화화 싱싱홀식  
 사람이 최령호야 천지의 버금이라  
 곤충초목과 주수비금이 품기를 편벽거날  
 인성은 가초삼겨 일신이 적다호난  
 이또호 건곤이리 호조각 마음속의  
 만스를 운동호니 성인은 외외호여  
 ���뵈의 션칭이요 범인은 녹녹호야  
 물욕의 잠겨시니 오장녹부와 칠규일이야  
 다르미 업건마논 수이논 만니로다  
 세월은 뉴슈갓고 흥망은 비조로다

우주 파람하니 몇몇뒤 지니거니  
 임군을 문져해고 하랄디강 색아  
 어린 아히들을 고금을 알지리라  
 반고시 처음으로 임군을 ◆커라니  
 시절이 혼돈하니 분별◆일 전혀업다  
 텃황씨 지황씨논 일업시 오릭살고  
 인황씨 아흠형제 구쥐를 논화더니  
 유소씨 논후의야 남글엮거 집을짓고  
 열미를 주어짜서 먹기로 씩돏도다  
 슈인씨 니어나서 비로소 불을닉고  
 큰일 저근일을 노흐로 보람하니  
 톨호 복희씨을 뉘라서 다툏던고  
 늣ᄇᄇ한미 들의가셔 거인의 조초보고  
 상감하야 빅야니니 스신인쉬러라  
 물노셔 놓나니 등우희 문이잇닉  
 팔괘를 노흔후의 세겨을 일워니니  
 텃하 만스을 글논후 다일낫다  
 톨성이 무지하야 금수와 일반이나  
 어미을 다만알고 아비을 모라거날  
 녀피로 빙폐하야 혼네롤 가라치고  
 머귀나모 거문고의 쑹나모 비파ᄇᄇ리  
 곡조로 화ᄇᄇ하다 신인이 감동하니  
 그물노 고기잡고 육축을 길드리이  
 스람되미 복희씨 공이로다  
 공공지 성닌머리 부쥬슨을 문희지르니  
 여화씨 오식돌노 하날을 기우니라  
 염제 신농씨논 인신 을슈로셔  
 뇌스롤 창거하여 여람을 힘써짓고  
 저조노며 흥정하기 이적의 시작도다  
 번기보고 나흔스람 이아니 현원쑤가  
 육감의 디요짓고 칙녁의 용침이요  
 영윤의 풍악하고 기척의 의술이라  
 궁단 속을보고 수례니이 읍이런가  
 소리기 소리보고 빅만드니 공읍리라  
 녀보의 질그릇국기와 셔릉풍시 누예치기  
 착한슬기 교흔지조 일시의 울흥하니  
 만물이 의의하야 초목도 고이하다  
 들가의 풀이늣니 일흥이 굴질이라

쇼언을 이어알고 가지록 2라친고  
 봉황이 원의놀고 기린이 정의누이  
 기벽후 처음으로 문명하다 흐리로다  
 아달은 금천씨오 손조는 고양씨라  
 제곡 고신씨는 신녕하도 신녕홀스  
 일변누며 제일홍을 이록도다  
 강원씨 십스월의 제요랄 누흐시이  
 어질기 하늘긋고 슬겁기 직신이라  
 모졸롤 부정하고 토계 승등우희  
 흑그랏 뵈뵈을 오십년 치정하니  
 강구의 격양하여 제덕을 노력하니  
 뉘쌀밥 며역국을 괴로이 낙이시니  
 허유랄 만나보고 천한랄 스양한뒤  
 허유 도망하여 괴손으로 다라나며  
 이더러운 두귀을 어뒤 씨술소야  
 영천 시내물의 맑음도 맑을씨고  
 소부는 무승일노 쇠곱비 놓히들고  
 귀씨손 물먹을가 그뒤도록 미미호쇼  
 소허의 늙흔절을 천고의 뉘싸로리  
 단주는 불초하고 정역은 쇠모하니  
 칠십이년 천조노릇 뉘겨로 전홀소야  
 고수의 완한모음 계모의 흥한성품  
 종종이 섬기시이 제순은 덕효시라  
 모히호난 아오상을 지성으로 감화하니  
 역손의 농부드른 밧갈기을 스양하고  
 뇌턱의 괴민드른 집터을 비혀쥬이  
 큰그릇 맛트리논 하늘이 낙시도다  
 교직설과 팔원팔괘로 남훈전 오현금의  
 남풍지 훈여로다 창오손 수레씨가  
 호련이 머러지이 이비의 피눈물을  
 어뒤가 뿌리신고 소상강 덕수풀의  
 지금의 어룡젓다 요적 구년슈을  
 놀노하여 다스린고 이비 못할일을  
 조식이 가로맛타 집문을 디나실제  
 아히우람 드르신가 수족의 털이나고  
 이목이 거머토록 구주롤 분쥬하여  
 강호로 길홀여이 견져닌 저만민아  
 고기될가 근심말나 우순의 착호시문

당요와 곱건이와 상균의 불초흔문  
 단주와 일양이라 공변된 큰천하랄  
 스스로나 집숨을가 하우의계 전위하여  
 혼갈긋치 다스리이 일시의 여러성인  
 연하여도 나실씨고 후세여술 낙하여  
 망국허리라 하고 한번 마겨보고  
 미리도 이르실스 후계을 달마  
 옥송이 도라건이 조손이 셔로니어  
 스딕을 겨유니라 왕송은 존열하고  
 여착은 활적하니 유일후 유복지가  
 아니 소강인가 옛기엽 증흥하니  
 그어미 공이만희 역수가 진한후의  
 하걸 아니날가 경궁요덕속의 익희랄 너허두이  
 직물을 모호노라 민심을 다훗터니여  
 주지 육손가의 용방을 세워두라  
 쇠골희 체능힘을 하전혀 맞지마소  
 은왕 성탕을 하늘이 밧비니여  
 신야 늘근이야 밧갈기 마양하라  
 잠기을 잠간녹코 남스로 향하라  
 텃명을 밧조와셔 스희랄 건지시이  
 신절을 일흐시고 턱위랄 아스스이  
 늦밧치 참괴하니 오리려 계시던가  
 칠년을 덕한하니 구년수 작이로다  
 상님의 비논말숨 구만이의 올나가이  
 하늘을 놉다마라 뜻기논 썩라도라  
 숨십육덕 닌여 용군도 만컨이와  
 초야 어진신하 오익의 익쳐시이  
 몽중의 뵈던얼골 그려니여 초조보이  
 담쓰는 칙발노옹 맞치도 곱틀시고  
 가물의 비을숨고 큰집의 기동이라  
 명양을 의논하면 탕윤의 언마밀이  
 텃신을 옥허거든 별악을 면홀소야  
 상주랄 이어니여 망허를 지촉하니  
 조구 포림은 하걸을 본을씻니  
 구리기동으로다가 불속의 썩러지논 괴동  
 달기야 보지마라 무어시 쾌허던야  
 비간 모음속의 일곱궁기 잇단마라  
 조식킨 안희들야 비을타 닌여보고

구후의 어린쌀을 젓괘을되 무솨일고  
 음논을 괴스려든 그뒤도록 노흘씨고  
 괴즈의 밋친터와 괴즈의 다라누기  
 비즈의 죽논일과 다름이 잇다하라  
 유리의 가드여셔 젓먹으니 그뉘신고  
 아들의 고긴줄 알진가 모르신가  
 미인게 아니려면 스라누기 어렵도다  
 위천의 손영혀여 무어슬 어드신고  
 어와 저어용아 팔십연 고든낙시  
 고기의 뜻지업셔 천혀을 늦그려닌  
 후괴의 시○○아 문왕을 만나신이  
 젓일흔 창싱드른 조모랄 벅락논듯  
 수양손 고스리가 조라논줄 모룩노라  
 보빅웃 밋비입고 불의들기 조흘소야  
 공교흔 여우우숨 누술줄 모로논가  
 ○의손의 노힌말과 도림의 조논소  
 한가흠도 한가할스 티평을 너도우논다  
 적덕을 셤이혀니 성인드 만이나닌  
 들의바린 아희 우마야 밋지마라  
 초데찬 어름우희 식품의 길너넉이  
 빅곡을 심거먹고 스랏논 빅성들아  
 뉘덕만 덕이논듯 후직씨 공이로다  
 십스디 고공단보 티강을 빅필혀니  
 두성인 누은아들 착하도 축할시고  
 형손의 약을키여 세상을 이즈신가  
 티님 티스논 티강을 효축혀니  
 팔빅년 괴업을 여러닐시 과연올히  
 강보의 쓰인천조 업으시이 그뉘신고  
 문무 겨실제와 추혀나 드를손가  
 성왕긋튼 현군을 쥬공을 의심혀니  
 스람이 징계혀미 참소벗 쏘인논가  
 부레풀 붓친빅 언제면 도라올고  
 팔준마곳비 붓비모라 요지을 초즈신가  
 왕실은 쇠고혀고 제후도 강경혀디  
 성왕곳 아니려면 뉘다시 중흥혀리  
 아들 줄뉘논하 포스만 조와혀니  
 웃논거동 모양보려 봉화을 조로드이  
 도적이 드러온들 뉘라셔 의심흘고

조회홀제 후왕을 당의느려 못논줄  
 천운이 쇠미한지 인물이 강지한지  
 성왕이 이원하고 포군이 되작하니  
 주실의 늙은기강 집집이 희롱  
 춘추적 심니제후 초종우을 셋거치이  
 소릉언덕 저문날의 위엄도 중컨이와  
 천하사 늙은단의 군흔거름 무스일고  
 셔리씨 첫되문의 눈물이 그음업다  
 긴말숨 그만하고 열국을 도라보이  
 춘추 전국씩는 싹흙긴 날이업니  
 승픽는 분운하고 성지는 훌훌하다  
 영웅호걸과 의스충신이 되마다 허라면  
 훈붓스로 다쓸소야 열스의 장한솟과  
 충신의 빛는황적 되마다 허여가며  
 누르마다 추려니여 어진일 식침숨고  
 간수를 징계하여 준나라 오피중의  
 환공이 웃듬이라 함기워 시른원슈  
 누말듯고 정승삼아 일광천하 규합쳐  
 후공업도 함도할스 관표의 중한교조  
 천고의 흥나힐다 진헌공 밋친마음  
 여희를 전통하나 궁중의 드린제물  
 옛시를 두단말가 독을셋거 시험하니  
 소신은 무슨천고 신칭의 죽난일이  
 효진줄 니모랄시 중니도추는 분하니  
 조차니가 누련고 호연조최 인도하고  
 전할위쥬 뒤흙초초 너른천하 언마전 타를소냐  
 한덩이 마른흙을 절하고 바들적의  
 네나라 엇고일키 턱반이나 정하도다  
 비의예 중흔뜻과 회영의 조턴얼골  
 일시의 닷썰치고 스방의 솟을두어  
 십구년 썰은광음 씬속의 더져두고  
 위수남녁 옛비들은 조흔안식의 씌여두고  
 교교이 우든용이 못슬 초조오고  
 다리빈힌 저한부야 어이하야 우러던고  
 옛공을 감흐려고 불조초 노탄말가  
 명손의 것친언덕 봉하야 무숨하리  
 천추 한식절이 기조출 비로소섯니  
 초장왕 어른슬기 되업을 이어맛다

숨연만의 우는시가 턱흔을 놀니도다  
 몽톡의 불근열기 피업을 점보하니  
 성인의 지혜 아름도 아르실스  
 착하다 단목공이 셔용의 업을니어  
 퍽니회 저승이오 건축으로 스승삼아  
 지는 발근일을 일시의 썩치도다  
 진나라 아희들아 코소리 마리셔라  
 오고티후 죽은후의 뉘라셔 덕신하랴  
 오피의 말지임군 일흠이 그뉘신고  
 소양공 어진일흠 천고의 가소롭다  
 제경공 착헌덧이 쇼빅을 이어셔  
 님최짜 긴송스랄 만덕의 괴약더나  
 유위씨 저근아히 큰위를 안단말가  
 조최의 어진아들 여류니 두텃도다  
 도안가 모진슈단 쇼시랄 니멸하니  
 다리스이 썩던아히 우름소리 드러손야  
 영구의 의기충심 목을바다 살나니니  
 만고의 드문절은 두스람 썩이로다  
 앓감다 연능계조 어니하여 도망하고  
 퍽양걸인 칼히 지금의 삼연하다  
 퍽빅의 큰의거를 이즈리 몇몇치나  
 고기속의 감천칼히 교도 흥형할스  
 소관의 군한조최 초망을 버셔나이  
 사흘밤 눈후나 즐작쉬를 뉘전하니  
 노화를 쓰리치고 빅익연지 몇놀이니  
 요간의 칠성문을 밧빅굴너 무엇하니  
 빅반어깁 후헌정을 빅연의 이줄소야  
 성명을 못지마소 노중인 나썩일세  
 초평왕 나문낙시 진닉을 짜라간가  
 오즈셔 쇠치소리 손하을 진동하니  
 오강의 썩는치어 원성이 믹쳐시이  
 동문의 걸인눈 이썩도 못보던가  
 저라손 앓춤놀의 완스하는 저미인야  
 고소덕 취한흠을 너아니면 뉘도도리  
 낙라히 정한후의 할스업 바니업니  
 오후쥬 조흔경을 너만흔조 보려는다  
 도쥬의 붉은소견 부조되기 쉽건만안  
 초나라 저조우희 아들을 못술은가



열국이 분분하야 공여랄 만컨이와  
 현신을 제라하면 진숙향정 조준이  
 인외로 손부숨아 덕형이 제일이라  
 공조도 허하시이 허물며 후세인가  
 스제의 구든절이 죽은들 업술소야  
 벽옥의 슈례소리 궁문의 굿쳐고나  
 남관의 거문고논 초현을 골누는디  
 시화의 미인술위 가고올줄 모라는가  
 초손 너른길의 적설이 막하시이  
 횡장을 썰쳐니여 지기을 보닐적의  
 못노라 이한몸이 어디그 탁신홀고  
 천추의 늑흔교복 탁신홀 고지로라  
 군슨의 빅을움계 아미로 향하리다  
 송강의 가을달은 한김천이로다  
 고손은 아아하고 유수는 양양하니  
 유벽아 조흔곡조 조그의 늑흔의조  
 미진정이 금눈을 비겨던이  
 엇지타 석상을 회금회를 썩치누요  
 초손의 우는황잉 벗부로는 소리로다  
 변화는 옥을타고 월죽조 되단말가  
 들속의 쓰인보빅 싹그니여 옥시로  
 나위노라 뇌힌듯 초저갈줄 모로논고  
 남조의 더러오문 붓그럽드 허련이와  
 어미을 모히하고 아들의게 쏘치미이  
 강상의 덕변이요 천지의 죄인이라  
 앓감다 축한스람 의리을 들아는가  
 썩씨고 죽은후의 젓담을죄 무숨일고  
 분운흔 성피간의 썩솔이 조옥하니  
 왕풍은 소지하고 일월이 회식하니  
 노담의 허한말과 열조의 밋친법이  
 일시의 병형하여 인심을 혹하게하니  
 슬푸다 구취인민 금수이 적의홀다  
 이구손 비는정성 하늘이 감동하여  
 성인을 뇌여두고 명도랄 궁케하니  
 숨천제조 거느리고 스방의 철환하야  
 광인의게 옥을보고 진채의 이위실제  
 담담한 헌그소리 횡단과 다을손가  
 크나큰 도덕을 어디가 용납홀고

협곡의 큰우염으로 비를 버히시고  
 노국의 빗눈정스 정묘를 죄주시이  
 구십일 다스린공 승죄의 빗치누니  
 시셔을 더르시이 체격이 발나젓고  
 계스를 지으시이 건곤이 정혹도다  
 예약의 근본이요 정교의 웃틈이라  
 춘추 일부서의 이또한 툇평이라  
 성인의 허실일은 괴아이 다하시야  
 현원씨 죽어스이 괴린은 무스일고  
 양염 큰운수를 씬속의 점복하니  
 식벽달 긴노리의 천운이 진혹것다  
 툇손이 썩거지이 벅률뒤 바이업다  
 승연상 못춘후의 칠십조 훗터지이  
 조공의 붉은지혀 말줄하기 조랑말고  
 기스마우희 부귀가 부운이라  
 민조의 큰효도와 원훈의 가는하기  
 천고의 빗눈일흠 민멸할줄 이술소야  
 안조는 조표줄하고 이단은 봉후하니  
 칠십년 깃친도통 뉘계로 전탄말고  
 텃지간 큰으리을 하늘을 췌여스이  
 증슴의 너른학을 성인을 이어고나  
 히진 큰길가의 칼품고 우논스람  
 말마다 오염하고 소리마다 의원하다  
 품속의 뒷친셔름 아미의 박혀스이  
 저조우 마른고기 술기을 구할소야  
 어지러운 품진속 효조의 정이로다  
 승진은 춘위하고 이뉘는 미약하고  
 전국시 어지럽기 춘추도곤 더혹도다  
 칠국이 병장하니 강약을 결울적의  
 부절업슨 나라을 업수이 역여던이  
 상양의 독한법이 부국강병 혹단말가  
 효함의 험한지형 위수을 되을둘너  
 승천을 여어본들 구정을 움길소야  
 괴져타 초나라소가 황금을 쏩으로누니  
 길닥는 승장소야 누라망키 직촉마라  
 일모랄는 육국왕은 변스의 녹낙하야  
 앓참의 링세하고 나지희 병을니니  
 소진의 세치혀로 강하를 거후르이

말만한 황금인을 탓토여 니여주니  
 한허리 여인여섯슬치고 향손의 도라오니  
 뵈틀우히 늙은안히 누리지 무라소서  
 어루기는 저우치미 밥지을줄 모리시데  
 귀곡조의 묘한술업 순간의 놓히안조  
 제조들을 노하두고 일업시 희롱하니  
 발업손 품마인이 도망하기 쉽던지  
 마능길 흰길시에 혼획이 느라간다  
 원상춘농 스공조야 식각모화 쓸씩업다  
 함곡관 직힌군스 잠들도 깃흘시고  
 야간의 우는닭기 진짓것만 낙이도다  
 평원군 부된눈이 상보논체 마라스라  
 녹녹한 십구인이 밥을먹을 비잇스라  
 이비술인 옛은혀 몽킨들 이즐소야  
 군왕의 품은옥인 야간 도적하니  
 앓갑다 늙은장수 술길 전혀업다  
 이문의 늘근노옹 피을 뿌려쓰이  
 충신공 처음공을 싱각하면 크건이와  
 후방의 감춘계집 어이하여 드렸던고  
 비속의 든아히 천윤이 붓고엇니  
 어리다 초회왕아 병갑이 적다던가  
 상우사 육획이을 장외예 속아두고  
 호랑갯탄 진나라을 의심업시 드러가이  
 굴원의 말뚝던들 죽을가 시부던야  
 세상이 취한속의 흘노씩여 건일면서  
 창남속 뭍은곳의 이소경 놓히윽허  
 이몸을 어딤두리 어롱밧기 알이업다  
 초강 어복속의 충혼을 영장하니  
 회소정 빗눈길의 물스리 더욱슬푸다  
 송옥의 가늌낙술 부를소야  
 양춘 퉁설곡을 누라셔 화답하니  
 초양왕 옛조최 양되가 초줄소야  
 저역비와 앓참구람 썬이로다  
 황금되 저일층의 비끼고 셋느님군  
 죽은말새 스라울적의 손말인들 아니올가  
 셴노라 칠십여경 호음사이 항복밧고  
 쥬목성 네운디가 붓히가 되단말가  
 이문의 셋느어미 아들오기 기드린다

저주우 말숨의 요치을 죽인후의  
 반야의 닷눈소는 환총의 정인가  
 텃지을 진동하고 뇌정이 진첩하니  
 순슈의 취한빛치 일시의 거두엇니  
 뒷간 부린송장 손정의 길흘보라  
 취각의 오춤으로 불스약 숨아두고  
 유유한 제딤답의 진왕을 희롱하니  
 구슬감춘 도적의 수단으로 느라조촉 여어보니  
 두스람 흑온일이 맞치도 곱흘시고  
 두우의 한치칼노 빅괴을 죽인후의  
 채택의 조흔말이 정승을 스양하니  
 티쵸의 어두오물 그옥히 웃노라  
 오기는 술쳐하고 악양은 식조하니  
 천고의 빅황이라 일을것 업건이와  
 파목의 용병으로 못쓰이 할일업다  
 산흔는 방조하고 어린님군 바이업니  
 북소리 싹흙의툃글이 동서의 분분하니  
 요란타 이시절이 언제면 진정하니  
 전흔는말 미지마소 증습이 스란홀가  
 뵈틀의 북소리 첫번은 조약던이  
 두세번 두홀제 더지논줄 싹다를가  
 링모는 세번을 마그아달 아경으로  
 조회하니 천고부인니들 귀가지고 드러보소  
 천의도 고이하다 양성이 허소한데  
 당우 옛풍속을 쏘어이 어더볼고  
 함과의 모진누예 산동을 썩만너겨  
 밤늦으로 다먹으니 남눈입히 이술소야  
 하단의 큰장스야 괴화을 아라보고  
 천금을 훗터니여 화양을 달닌후의  
 조식킨 고은첩 티조을 속여준다  
 열두달만의 칭남할줄 어이 알이요  
 육국을 평정하고 만이장성 어우치이  
 아방궁 스람이 영시려가 닉시려가  
 아들은 천조되고 옛첩은 티후되이  
 상국의 권을잡아 부귀가 극진커늘  
 구정을 못이조이 조물이 썩리도다  
 만권셔 타논니가 천하의 가득하고  
 불스약 키러간빅 도라올 괴약업니

박낭스 너른솔의 우의도 거룩하다  
 스씩근 철퇴로 부거을 닙더치이  
 포총의 장한기운 구람뵈기 녀시로다  
 싱포시른 양기을 스구로 밧비모라  
 천세만세 전할계교 조금 미더런이  
 궁중의 놀닌스슴 말이되여 노혀는되  
 싸로는 호걸드라 뉘발이 색른작고  
 구정을 드논아히 중동을 부름쓰이  
 강동저주 팔천영웅이 구름뭇뭇 바람이뭇  
 함양을 불지르이 수달이 나타닉  
 퉁퉁의 늘근용이 여용의 스희로써  
 길가의 큰뵈암을 촌촌이 동강치이  
 귀모의 우름스리 야반의 오웅하다  
 동향 옛뵈으로 승상을 숨아두고  
 황석공 제조어더 묘척을 의논하니  
 천하 디원수를 쏘어디가 어더올고  
 성아리 초모의계 비러먹난 저스람아  
 흥무연 칼춤이 조흔뭇만 너기는다  
 춤뵈는 한소리의 만인이 놀닌것다  
 초뵈왕 웅장한세 너아니면 뉘당하리  
 괴소사 칠십용이 성노후 주먹으로  
 옥주우을 썩트리이 나눈눈이 분분하다  
 진평의 악조구로 등창을 느껴하고  
 히하의 스면초가 통소와 셋거부이  
 우미인 슬픈노리 월하의 익원하다  
 오강의 히다지이 천이말도 아니것닉  
 전장의 썸인뵈을 건너라 권치마소  
 강동의 부러진돌을 다시볼 낫치업닉  
 한나라 스뵈연을 오날부터 헤리로다  
 남궁의 디여 퉁상황기 현슈하니  
 도마우회 놀논고기 국훈그랏 되엇드면  
 이술한잔 먹어보기 싱각하기 어렵도다  
 계싸도로온 영시법과 포려흔 위엄  
 계유격고 남은뵈성 천일을 어더보닉  
 은쥬 나린후는 피란이 웃듬이라  
 고신이 다죽으니 적송즈랄 뉘짜르리  
 상산의 네늬으니 쥬지키기 날혀여라  
 척부인 조한말노 큰의스 먹지마소

여외랄 못밋초지 인체될줄 모르는가  
 여후의 서린투그 발뿔날이 업술소야  
 마상으로 어든턴한 마음되로 쥬장흐니  
 조손의 아니전코 여가랄 쥬려흐은  
 그어인 의스런고 지금의 닉몰니라  
 경모흔직물 무제는 허비흐니  
 신황도 뭇본신션 어더볼가 녀이던가  
 손옹의 괴이흔술 죽은스람 다려스니  
 니부인 칭전티교가 송중의 과연굿다  
 퍽만군 치모라 흥노랄 일삼으니  
 건장궁 천문만흐 반공의 소스스니  
 승노반 늑흔들기 일억만 허비흐다  
 강동의 무초랄 퍽조롤 모히흐니  
 남호 놀닌흔빅 도라갈 고지업니  
 솜속의 퍽두음이 붉이도 고을시고  
 망조되 슬픈바람 양낙궁의 어리엿다  
 성왕을 업은거동 그려서 놀맛진고  
 곽광갓탄 밋분신하 믱양나기 쉬울손가  
 이리음 인물들을 뒤강 헤여보소  
 가퍽우 김흔총성 니장군의 영봉으로  
 장스의 닉치여셔 북정의 쥬어잇고  
 반도 짜던손이 급문의 숨엇는가  
 히양의 어진신하 부를줄 이즐소야  
 전속의궁 구든마음 한절을 집히시니  
 질드리는 저슈양이 언제면 샷기치리  
 상님원 기력이가 김굴을 전탄말가  
 갈적의 검던머리 퍽발이 부치니라  
 마천의 문장이오 상여의 스뵈로다  
 장문부 어군심이 다풀니니  
 문군의 쥬루가의 봉구황 한곡조로  
 반야의 짜를적의 실신이 극흐거든  
 반첩여 지는달의 퍽두음은 무숨일고  
 성황의 음특흐기 쥬유왕 짝이로다  
 반첩어 어딘덕이 추풍의 단션이오  
 비연의 모진불이 황조를 직쫓는다  
 국강이 초미흐고 지척이 전권하여  
 효원황후 한스람은 본증으로 인쳐흐고  
 천기를 잠간들너 하마면 망홀너니

왕망의 손가온디 십오연 옴긴구정  
 익슈 진인이 한칼노 회복하니  
 남양의 등간소연 양정의 후신인가  
 무루정 두죽과 호타한 익반으로  
 장구이 잇디말물 청하느니 그리러니  
 어옹의 긴다리를 뷁우희 언저주니  
 텃문이 엇더관디 틱스야 놀나는다  
 조강 옛쳐즈랄 하당을 아닛느니  
 송홍의 스양하물 착히도 녁이더니  
 음여 화형으로 곽후를 폐하시니  
 앓갑다 붉은거울 툇글이 씨이도다  
 한명제 붉은소견 허탄흔 심을미더  
 이적의 일범으로 중구을 미혹하니  
 텃지간 도덕으로 양목도곤 심하도다  
 만고의 문장으로 마천을 니어니니  
 정장디의 어진겨집 오라비를 쏘니어니  
 정한 전형으로 여궁를 지어니니  
 도지가의 착한일흠 만세예 전하도다  
 덕요의 추한얼골 양홍의 짝이런가  
 황씨의 저른치마 녹괴를 기파  
 티릉손 석전모유 은주의 지피로다  
 낙양성 화류시의 굴더지논 참여들아  
 반공의 오논길이 시름을 못이긴다  
 환관의 전총하기 손정으로 비루셔셔  
 십상시 한권을 디장군을 못아스라  
 동탁의 어린쑤이 왕명을 미골쑤넉  
 비부록 등잔불이 톱놀을 발아시이  
 수풀의 반디불이 중흥한 공이된다  
 천운이 무심하여 적신을 이어니이  
 죠죠의 간스한씨 문왕을 범바들가  
 수션픽 지을이르고 아들드려 그르친가  
 도원의 피운향불 한화을 이을년이  
 오장원 흐르논별 붓비도 쑤러젧다  
 동오 아희들아 분분 이구마라  
 천하을 외만역계 세퉁짜려 무엇하리  
 장판교 적벽전을 만고의 장타하나  
 촌간의 톱발노고 아만을 아히보듯  
 벼로을 놓히드려 붓슬쑤거 치려하니

설상의 추양이요 흥중의 복일이나  
 장물 의논하면 서모가 저일이라  
 하늘이 심심하여 천하를 희롱하니  
 인걸을 모을부어 훈씨의 닮여두고  
 스희의 검극이요 구쥬의 정기로다  
 초목은 피을씩고 손하는 벼가뒤이  
 김흔씨 너른슬그 귀신인들 어이알며  
 날닌용장 한심을 조화도 못결우니  
 창창한 저상제야 니한말 드러보고  
 동여을 저어하려 초선을 닮여건이  
 쥬유를 격동하려 교시를 닮여늬이  
 메형의 미친체로 조조를 완동하고  
 우길의 도법으로 손척으로 속여스이  
 쇼열의 닮여쓰준 회복할가 녀여던이  
 덕도를 만나보되 못이러 늬게하고  
 셔셔를 어덧다그 종시히 일케하이  
 봉츄란 즉시죽예 와룡만 혼조남겨  
 강턱공 주공일을 한몸의 겸하여셔  
 땡확을 칠금하이 지조랄 늬타니고  
 괴스 육출하이 뒤의를 붉혀스나  
 숨뒤적 티평을 못하게 하논일은  
 그어인 조환신고 아마도 닮여니라  
 천고영웅 눈물흘일 썬이라  
 훈규유 서말거리 역수가 도라간가  
 일시 속여시나 조손계 하라하라  
 허랑타 죽님칠현 착한체 너모마소  
 쓰러져 가논집을 붓드러 보아시라  
 스막의 두청의논 횡주도 공순하다  
 은교는 절기하고 조적은 격잡하니  
 성진을 말허볼가 오히려 땡세하이  
 조다가 닭괴소리의 춤추는 유월석이 시절이 저러하니 네지조거조 거시로다  
 낙양지조 고소각아 풍유만 희롱마소  
 곡강의 조흔흥이 일시의 스러지니  
 석계총 스은황금 어뒤로 가란말가  
 녹주을 앓기다가 모조초 죽여논야  
 하정의 우논학을 어이하여 드러볼고  
 히숙야 광능손이 쓴진들 뉘일으리  
 술집의 아희들야 도적잡고 조화마라



동녘집의 니부시랑 밤의온줄 모르노야  
 동상수 큰사람은 가랑을 점복하니  
 될진도 조흔체격 글시여 종이로다  
 남의로 것노말이 용되야 무엇허리  
 조정을 초창하고 복슈의 쫓지업서  
 형극의 누은동타 잠간이나 싱각하고  
 신정의 모든손이 눈물져 무엇허리  
 첨담을 일숨으니 너히는 편컨이와  
 퍽여년 썩란세월 간과중 지니것다  
 말만 황금인을 너죽이고 어드면  
 이퍽인이 죽은후의 탄식흔들 무엇허리  
 놉흠스 핑퍽영아 성명이 무엇신고  
 오두미 위하여 긴허리 굶핥소야  
 세상의 다든문을 언제나 여러볼고  
 남북 조용하문 춘몽과 득를소야  
 니논듯 망하논듯 제송이 얼핏시라  
 스면의 오랑키 오열국의 황제로다  
 오읍다 장무제는 붓쳐의 제련가  
 일중의 나물밥이 요망케 극진커늘  
 면으로 만든양이 송문쫓초 속일것다  
 붓쳐도 야속흠스 뒤성의 아스흠적  
 한그랏 지식으로 구할것 아이려가  
 진퍽션의 욕심으로 뒤우는 아스시나  
 천명니 아니여이 복포가 어길이어  
 장여화 고은얼골 후정화 한곡조로  
 호탕한 진후주을 요혹하기 어려우라  
 한금호의 한스흠의 슈느라히 되엇고나  
 슈양제 진부인은 누구만 녀지가논  
 득쥬고씨 모진투고 황태도 저허허니  
 시부흔 몹슬조식 언연위에 올라  
 겨울의 그린솟치 지논듯 뛰논고나  
 십늑원 조흔경을 스시의 당춘이요  
 미루정 제일총의 션악이 족아져다  
 강하로 길을여니 구연슈 져던가  
 당성을 다시싼들 오랑키길 엇살소야  
 청야유 한곡묘랄 언마논 즐기신고  
 농쥬를 썩곳의 듯기슬흔 전고소리  
 고고히 이러논니 격셔를 닦으더야

취몽을 다뭇싸야 처히를 옴겨가니  
 니연의 큰뜻으로 세민을 두엇거든  
 터명과 인심니 다른되로 아니가리  
 활달은 한고긋고 신무난 위도갓고  
 탕무의 정벌과 성강의 전성후를  
 턱종이 겸허니라 선유시의 괴려스나  
 허무문 뿌린피가 못미쳐 말나거든  
 궁중의 늑은왕조 뉘빅엇단 말가  
 옥누 시백달의 암<sup>나</sup> 이 가음후니  
 독속의 취한빠 가리되여 무엇후리  
 우물이 되로늑이 음풍이 언제길고  
 녹산의 비단기식 동방을 꾸며두고  
 청평수 한곡조랄 조흔흥만 도도던이  
 어양비 고성외 우의곡이 간딤업다  
 비속의 말조마음 적심의 되단말가  
 마위가 되논쫓출 봉늑이 쳐저보소  
 이미슨 가는노식 뉘라셔 도로혈고  
 곽조의 광필아 너아니면 엇지홀고  
 앓갑다 슈양턱수 윤조의계 죽단말가  
 노회청 큰절 월만춘과 다을손가  
 니적션 두공보논 문장도 그이후다  
 잇씨예 이을거시 이밖고 무어시리  
 니림보논 전권후고 장구령을 니치이  
 이또한 하늘이르 후후여 무엇후리  
 뇨순의 큰그랏과 송경외 착후무로  
 방강을 이어스이 턱평홀가 녑엇던이  
 쇠운이 점점오니 불헝홀 쏘이로다  
 한문공 학문으로 턱의를 치뭇아라  
 팔이의 쇠한줄을 일도의 일희여스  
 이명문 큰공업이 세상을 붓들넌이  
 불골표 후줄장의 팔천이 표취로다  
 숨뵈연 득뭇치와 오뒤가 되단말가  
 앓참의 꾸른무름 저녁외 남연후고  
 어제늘 이론스업 오늘날 터도업넌  
 청턴외 쏘구람 경각외 스러지뭇  
 손뵈 뒤집뭇이 뒤도록 쉬울넌가  
 우읍다 풍도여이논 득뭇성을 득뭇겨넌  
 이정승도 조컨이와 붓그럽도 아니턴가

자교의 취한몸을 황포로 누덥흔고  
 화손의 저논느귀 풍진을 향하다가  
 소식이 엇더관디 창황이 써러져니  
 덕송의 평지혹문 한당을 불워하라  
 조보의 포은계교 병진을 다거두니  
 선장도 추밀아 원망들 너모마라  
 한신평월 죽은일은 너도아니 보앗는가  
 신선은 허탄하니 천세를 밋불소나  
 탕흠의 조흔말숨 현신을 다희하니  
 뇌쥬성 덕슈플의 다퉈공을 존상하며  
 왕안석 기촌혹문 속슈도 속으신가  
 소동파 문당을 창타도 허려이와  
 일시의 잘못홀일 민낙을 골나고나  
 성인외 큰도통을 하람으로 전하도다  
 명도니천 죽으신후 쥬부즈가 쏘느스이  
 강목의 지으시문 춘추의 필법이요  
 칠석의 쥬을니이 성학의 더욱막히여  
 천진의 우느뒤경 성두르신이 뉘신고  
 영산의 두숙려 도라올 기약업니  
 강남의 군신들아 반계셔 은지파라  
 오린의 장한용과 한세충근 묘락이  
 앗참의 싸호다가 저녁의 허여지이  
 간신의 작용이라 회복할길 전혀업니  
 동창의 가느말삼 뉘라셔 열어느볼고  
 악무목 정충괴를 무엇허려 남섯던고  
 이손의 지느히을 편주의 시러다가  
 육부의 가득한걸 어딴로 저어갈고  
 문승상의 외로운몸 오곡성 흑이된가  
 원천하 비린니을 뵈여연 깃쳐던이  
 진인이 잠을씩여 곽자흥의 익셔되이  
 진황후 기문화약 경상도 기이허나  
 육기로 양양숨고 셔달노 한신숨아  
 필부로 이러느셔 증원을 소탕하니  
 명조의 공열야 한고와 일반이나  
 상조의 너흔가스 밋비입고 어딴간고  
 북으로서 오느제비 황성으로 나라드이  
 불상허스 방효유야 구족은 무슴친고  
 경청의 품은칼 쓸디업니

슈씩연 겨유느려 손회관 누구련고  
 진황의 장성쓰문 방호홀 계교로서  
 몇변회니 뵙성이 이적이 되단말가  
 스람이 늙은후의 소년스 허랴하나  
 근녁이 다쇠후 후 쏘다시 못허느이  
 하늘도 그러허여 세덕로 강쇠허가  
 인간의 느느스람 충분이 다투하이  
 지덕을 비교허면 점점 못짜로거든  
 시절이 어이허야 그러치 안일소야  
 승왕 으제는 오히려 상고씨라  
 순박도 너모허고 일척만 여기러니  
 당우 하은쥬는 뵙스가 극단허여  
 사람의 이삼십의 강중흥과 서로갓희  
 쇠겨 드른지가 오류연이 거의되여  
 나기를 늦게허니 예시절을 어더볼고  
 변스는 전국씨요 문한은 진한제라  
 당적의 만흔시각 송적의 여러유현  
 말세에 나느사람 따라보리 바히업니  
 당논이 이러나서 살별을 셔로니어  
 한붓세 시죽허여 당의와 심허더니  
 송적의 다다라느 공극허물 다니르야  
 불법니 허탄허야 인심을 미혹허니  
 한말 셔역의셔 등국의 드러오니  
 디마다 승상허여 썩드르리 뉘잇느고  
 무함이는 지오라 삼덕제도 잇거니와  
 시속이 치치허야 밋바라 핍가허라  
 열희셔 아흠이라 경계홀 곳지로다  
 는후부터 쥬역을 링그러셔 점법을  
 아라니여 후일미리아니 성현도 미드시니  
 업시튼 못할진디 용열흔 복주의말  
 흑허고 시울홀스 신선이 잇다허나  
 황당코 허무커날 영웅 호걸들도  
 속나이 쏘만토다 도스의 환술허기  
 이만 고이허라 왕왕이 시험허여  
 스기에 분명흔디 술업이 텃미허나  
 전허리 업시니라 사람의 상을보아  
 궁달을 단정허고 뵙보고 병을아라  
 약먹여 곳쳐니이 잡술이 분분허여

어니다 기록하리 길흥 지천하고  
 스침이 다명이라 만고을 허아리이  
 장삼할일 만하라 슈요단이 참치부제하니  
 만물과 스람이 슈요간 흔적이라  
 큰츄슈 허여보식 이천지의 언마슬고  
 동고란 적은타촉 널우희 구으나이  
 터고야 조촉마라 춘츄을 어이알아  
 니요때 도의화가 칙역을 니다말가  
 경조이월 십이일 필셔하노라  
 글씨라 하느거슨 천이굴이 굴이면  
 어룬의 공경니 아니니 절문 아희들  
 조심할씨여다 상가 조심하여 쯔쯔  
 급급하여 어룬의 글씨을 중논이  
 여길씨여라 춘정월의 시죽허여노라  
 계묘습월 초팔일 등셔  
 五月  
 쯔손이 무궁 오릭 두고 불씨여다 조심조심

五月不熱∞ 清秋

五明扇把彈五絃 南董殿上梧桐秋  
 江城雨歇落梅花 庭樹風來班竹枝  
 颼颼一陣手中生 赤帝乾坤行白帝  
 時當五月苦炎熱 安得◆中麥籟秋  
 披衿柳陰未生涼 露頂松風難却暑  
 平頭起把造化扇 陳陳清風來故人  
 東山吹送謝安葵 北窓噓來靖節枕  
 茶烟歇處酒亦醒 颼颼涼颼如有情  
 飄然攪我午窓夢 是◆何時忌却夏  
 人人何處汗沾衣 物物冬朝清滿袵  
 團團白羽奪化權 翁得麻頭一扇秋  
 依稀蘓子羽化仙行佛張張順飛時  
 華堂醉客最先聞 風自何來聲在樹  
 紅爐氣像戶外天 白露續神床上世  
 時維三夏屬三冊 童子何知翁白冊

[현대역]

낙대가

하늘은 언제 나고 땅은 언제 났는고  
 란방박 앙알하여 한 기운 뿐이러니  
 태극(太極)1이 어린 후에 음양(陰陽)2이 나뉘어서  
 양기(陽氣)는 상승하여 천문(天文)3이 이어 나고  
 음기(陰氣)는 하강하여 지리(地理)가 생긴지라  
 수화금목토(水火金木土)를 이르니 오행(五行)4이라  
 오행이 상승하여 만물을 빚어내니  
 형형색색(形形色色)5으로 화화 생생할세  
 사람이 제일 중하여 천지에 버금가노라  
 곤충 초목과 주수비금((走獸飛禽)6이 품기를 편벽(偏僻)7거늘  
 인생(人生)은 갖추어 생겨 일신(一身)이 적다하나  
 이 또한 건곤(乾坤)8이리 한 조각 마음 속에  
 만사(萬事)를 운동(運動)하니 성인(聖人)은 외외(巍巍)9하여  
 백대(百代)의 선생이요 범인(凡人)10은 녹록(碌碌)11하여  
 물욕(物慾)12에 잠겼으니 오장육부(五臟六腑)와 칠규(七竅)13야  
 다름이 없건만 사이는 만리로다  
 세월은 유수(流水) 같고 흥망은 비조(飛鳥)로다  
 우주를 파람하니 몇몇 대 지나거늘  
 임금을 먼저 생각하고 할 일 대강 싣아  
 어린 아이들에게 고금(古今)을 알리리라  
 반고씨(盤古氏)14 처음으로 임금으로 일컬으니  
 시절(時節)이 혼돈하니 분별할 일 전혀 없다  
 천황씨(天皇氏)15 지황씨(地皇氏)16는 일 없이 오래 살고  
 인황씨(人皇氏)17 아홉 형제 구주(九州)18를 나누었더니  
 유소씨(有巢氏)19 난 뒤에야 나무를 엮어 집을 짓고  
 열매를 주워 따서 먹이로 깨달았도다  
 수인씨(燧人氏)20 이어 나서 비로소 불을 내고  
 큰 일 작은 일을 노흐로 보람하니  
 태호(太昊) 복희씨(伏羲氏)21를 뉘라서 다투었던고  
 늙은 한미 들에 가서 거인의 자취 보고  
 상감하여 임신하였으니 사신인수(蛇身人首)22더러

물에서 용(龍)이 나니 등 위에 무늬 있네  
 팔괘(八卦)23를 만든 후에 서계(書契)24를 이뤄내니  
 천하만사는 그런 후에 다 일어났다  
 백성이 무지(無知)하여 금수(禽獸)와 일반(一般)이나  
 어머니를 다만 알고 아버지를 모르거늘  
 여피로 빙폐하여 혼례(婚禮)25를 가르치고  
 머귀나무 거문고에 뽕나무 비파(琵琶) 소리  
 곡조도 화평(和平)하다 신인(神人)이 감동하네  
 그물로 고기 잡고 육축(六畜)26을 길들이니  
 사람됨에 복희씨 공이로다  
 공공(共工)27의 성낸 머리 불주산(不周山)28을 무너뜨리니  
 여와씨(女媧氏)29 오색 돌로 하늘을 기웠도다30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31는 인신우수(人身牛首)32로서  
 농사법을 만들어서 여람을 힘써 짓고  
 저자33를 만들어서 흥정하기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번개 보고 날은 사람 이 아니 현원씨(軒轅氏)34인가  
 육갑(六甲)35 대요(大要) 짓고 책력(冊曆)36의 용생이요  
 영윤의 풍악(風樂)하고 기백의 의술이라  
 궁단 속을 보고 수레를 내니 읊이런가  
 소리개 꼬리 보고 배 만드니 공읍이라  
 영보의 질그릇 굽기와 서릉씨(西陵氏)37 누에치기  
 착한 슬기 공교(工巧)한 재주 일시(一時)에 울흥(蔚興)38하니  
 만물이 의의(猗猗)39여 초목도 고이하다  
 들가에 풀이 나니 이름이 굴질이라  
 소언을 이어 알고 더욱더 가르친고  
 봉황(鳳凰)이 원(園)에 놓고 기린(麒麟)이 정(庭)에 나니  
 개벽 후 처음으로 문명(文明)하다 하리로다  
 아들은 금천씨(金天氏)40요 손자는 고양씨(高陽氏)41라  
 제국(帝嚳) 고신씨(高辛氏)42는 신령(神靈)43하기도 신령할사  
 일변 태어나며 자기 이름을 일렀도다  
 강원씨 십사월에 제요(帝堯)44를 나오시니  
 어질기가 하늘같고 슬기롭기 재신이라  
 모자를 부정하고 토계 삼등위에  
 흙으로 벼웃을 입고 오십년 치정(治定)45하니  
 강구(康衢)46에 격양(擊壤)하여47 황제의 덕을 노래하니  
 뉘 쌀밥 미역국을 괴롭게 여기시니  
 허유(許由)48를 만나 보고 천하를 사양한 뒤  
 허유(許由) 도망하여 기산(箕山)49으로 달아나며

이 더러운 두 귀를 어디 씻을소냐  
 영천(潁川)50 시냇물이 맑기도 맑을씨고  
 소부(巢父)51는 무슨 일로 소고삐 높이 들고  
 귀 씻은 물 먹을까 그토록 매매하소  
 소허(巢許)52의 높은 절(節)을 천고(千古)에 누가 따르리  
 단주(丹朱)53는 불초(不肖)54하고 정역은 쇠모(衰耗)55하니  
 칠십 이년 천자 노릇 누구에게로 전할소냐  
 고수(瞽叟)56의 완한 마음57 계모(繼母)의 모자라는 성품  
 중하게 섬기시니 제순(帝舜)58은 대효(大孝)59시라  
 모해(謀害)60하는 아우 상(象)61을 지성(至誠)으로 감화(感化)시키니  
 역산(歷山)62의 농부들은 밭 갈기를 사양하고  
 뇌택의 기민들은 집터를 비워 주니  
 큰 그릇 말을 이는 하늘이 내시도다  
 고요직설(皐陶稷契)63과 팔원팔개(八元八愷)64로 남熏전(南薰殿)65 오현금(五絃琴)66의  
 남풍지훈혜(南風之薰兮)67로다 창오산(蒼梧山)68 순행지가  
 흘연히 멀어지니 이비(二妃)69의 피눈물을  
 어디 가서 뿌리신고 소상강(瀟湘江)70 대나무 수풀에  
 지금도 얼룩졌다 요임금 시절 구년수(九年水)71를  
 누구로 하여 다스리게 했는가 아버지가 못할 일을  
 자식이 가로말아72 집문을 지나실 제  
 아이 울음 들으셨는가 손발에 털이 나고  
 이목(耳目)이 검어지도록 구주(九州)73를 분주(奔走)74하여  
 강하(江河)로 길을 여니 건져 낸 저 만민(萬民)아  
 고기될까 근심 말아라 우순(虞舜)75의 착하심은  
 당요(唐堯)76와 같거니와 상균(商均)77의 불초(不肖)78함은  
 단주(丹朱)79와 한가지라 공변된80 큰 천하를  
 사사로이 집 삼을까 하우(夏禹)81에게 전위(傳位)82하여  
 한결같이 다스리니 이때에 여러 성인  
 계속하여 나섰구나 후세 여섯을 낳아서  
 망극(罔極)83하리라 하고 한번 맡겨 보고  
 미리도 알으셨다 뒤를 이은 계(啓)84 우(禹)를 닮아  
 옥송이 돌아가니 자손이 서로 이어  
 사대를 겨우 내려와 왕상은 잔열(孱劣)85하고  
 여착은 활적하니 유잉후 유복재가  
 아니 소강인가 옛 기업(基業) 중흥함에  
 그 어머니의 공이 많네 역수가 끝난 후에  
 하결(夏桀)86 아니 날까 경궁요대(瓊宮瑤臺)87속에 머리를 넣어두니  
 재물을 모으느라 민심을 다 흠어내어



주지 육손가에 용방을 세워두라  
 쇠골에 체는 힘을 하 전혀 믿지 마소  
 은왕성탕(殷王成湯)88을 하늘이 바빠 내어  
 신야 늙은이야 발 갈기 매양(每樣)하라  
 쟁기를 잠깐 놓고 남사로 향하여  
 천면(天命)을 받으셔서 사해(四海)89를 건지시니  
 신절을 잃으시고 태위를 아셨으니  
 얼굴빛이 참괴(慙愧)90함이 오히려 계시던가  
 칠년을 대한(大旱)하니91 구년수(九年水)92를 만들도다  
 하늘에 비는 말씀 구만리(九萬里)에 올라가니  
 하늘을 높다 말라 듣기는 빠르더라  
 삼십육대 내어 용군(庸君)93도 많거니와  
 초야(草野)에 어진 신하 오매에 맺혔으니  
 몽중(夢中)에 보던 얼굴 그려내어 찾아보니  
 담사는 백발노옹(白髮老翁) 마치도 같을시고  
 가뭄에 배를 삼고 큰집의 기둥이라  
 명양을 의논하면 탕운의 언마말이  
 천신을 욕하거든 벼락을 면할소냐  
 상주(商紂)94를 이어 내어 망함을 재촉하니  
 조구포림은 하갈(夏桀)95을 본을 떴네  
 구리 기둥 건다가 불속에 떨어지는 거동96  
 달기(妲己)97야 보지마라 무엇이 즐겁더냐  
 비간(比干)98의 마음속에 일곱 구멍 있다 마라  
 자식 가진 아내들의 배를 갈라 내어보고  
 구후(九侯)99의 어린 딸을 젓 담글 제100 무슨 일이고  
 음난을 기사려든 그토록 노흘씨고  
 기자(箕子)101의 미친 체와 미자(微子)102의 달아나기  
 비자(比子)103가 죽은 일과 다름이 있다하라  
 유리에 가두어져 젓 먹은 이104 그 뉘신고  
 아들의 고긴 줄 아셨나 모르셨나  
 미인계 아니었다면 살아나기 어렵도다  
 위천(渭川)105에 산영하여 무엇을 얻으시고  
 어와 저 어옹(漁翁)106아 팔십년 곧은 낚시  
 고기에 뜻이 없어 천하를 낚으려는  
 후기에 시[ ]아 문왕(文王)107을 만나시니  
 젓 잃은 창생(蒼生)108들이 자모(慈母)109를 바라듯이  
 수양산 고사리110가 자라는 줄 모르노라  
 보배옷 바빠 입고 불의 듣기 좋을소냐

공교한 여우 웃음 나설 줄 모르는가  
 ⑧의산에 놓인 말과 도림에 조는 소  
 한가함도 한가할사 태평을 너도 우는구나  
 적덕(積德)111을 선이 하니 성인도 많이 나네  
 들에 버린 아이 우마(牛馬)야 밟지 마라  
 차디찬 얼음 위에 새 품에 길러내니  
 온갖 곡식을 심어 먹고 살았는 백생들아  
 누구 덕만 덕인듯 후직씨(后稷氏)112 공이로다  
 십사대 고공단보(古工檀父)113 태강(太姜)114을 배필로 하니  
 두 성인이 낳은 아들 착하기도 착할시고  
 형산에서 약을 캐어 세상을 잊으신가  
 태임(太任)115과 태사(太姒)116는 태강(太姜)을 본받아서  
 팔백년 기업(基業)을 열어 내니 과연 옳구나  
 강보에 쌀인 천자 업으신 이 그 뉘신고  
 문무(文武)117 계실 때와 추호(秋毫)118도 다르겠는가  
 성왕(成王)119 같은 현군(賢君)을 주공(周公)120을 의심하니  
 사람이 징계함이 참소밖에 또 있는가  
 부레풀 붙인 배 언제면 돌아올고  
 팔준마(八駿馬)121 고삐 바빠 몰아 요지(瑤池)122를 찾으신가  
 왕실은 쇠고(衰枯)123하고 제후(諸侯)도 강경한데  
 성왕(成王)이 아니시면 누가 다시 중흥(中興)하리  
 아들 잘못 낳아 포사(褒姒)124만 좋아하니  
 웃는 거동 모양 보려고 봉화를 자주 드니  
 도적이 들어온들 뉘라서 의심할고  
 조회(朝會)125할 제 후왕을 당의 내려 맞이하는 줄  
 천운(天運)이 쇠미한지 인물이 강지한지  
 성왕이 이원하고 포군이 대작하니  
 주(周) 왕실의 높은 기강(紀綱) 집집마다 희롱하네  
 춘추(春秋)126 십리 제후(諸侯) 초종우를 섞어 치니  
 소릉 언덕 저문 날에 위엄도 중하거니와  
 천하 땅 높은 단에 군한 걸음 무슨 일인고  
 서리씨 첫 대문에 눈물이 그지 없다  
 긴 말 그만 하고 열국(列國)127을 돌아보니  
 춘추전국(春秋戰國)128 때는 싸움이 갠 날이 없네  
 승패는 분운(紛紜)129하고 성지는 훌훌하다  
 영웅호걸(英雄豪傑)과 의사충신(義士忠臣)130이 시대마다 헤아리려고 하면  
 한 붓으로 다 쓰겠는가 열사(烈士)의 장한 뜻과  
 충신(忠臣)의 빛난 행적 시대마다 헤어가며

나라마다 추려내어 어진 일 스승 삼고  
 간사(奸邪)131를 징계하여 주나라 오패(五霸)132 중에  
 환공(桓公)133이 으뜸이라 함께하기 싫은 원수  
 누구 말 듣고 정승 삼아134 일광천하(一匡天下)135 규합하여  
 후(後) 공업(功業)도 하였구나 관포(管鮑)136의 중한 교조  
 천고(千古)에 하나뿐이다 진헌공(晉獻公)137 미친 마음  
 여희(驪姬)138를 믿으나 궁중에 들인 제물(祭物)139  
 옛새를 두었던 말인가140 독을 섞어 시험하니  
 소신은 무슨 죄인가 신생(申生)이 죽은 일이  
 효제(孝悌)인 줄 나는 모르겠네 중이(重耳) 도추는 달아나니  
 쫓는 이가 누구인가 호연조최 인도하고  
 전힐 위주가 뒤를 쫓아 넓은 천하 얼마나 다를소나  
 한 덩이 마른 흙을 절하고 받을 적에  
 네 나라 얻고 잃기 태반이나 정하도다  
 비의의 중한 뜻과 회영의 졸던 얼굴  
 일시에 다 떨치고 사방에 뜻을 두어  
 십구년 빠른 광음(光陰) 꿈속에 던져 두고  
 위수 남쪽 옛 비들은 좋은 안색에 띄어 두고  
 교교히 울던 용이 못을 찾아오고  
 다리 베인 저 한부야 어이 하여 울었던고  
 옛 공을 갚으려고 불조차 놓았던 말인가  
 명산의 거친 언덕 봉하여 무엇하리  
 천추 한식절이 개자출 비로소 첫네  
 초장왕(楚莊王)141 어른 슬기 대업(大業)을 이어받다  
 삼년 만에 우는 새142가 천하를 놀래키도다  
 몽택의 붉은 열기 패업(霸業)으로 차츰 나아가니  
 성인의 지혜 알기도 알아야하니  
 착하다 진목공(秦穆公)143이 서융(西戎)144의 업(業)을 이어  
 백리해(百里奚)145 재상이오 건숙(蹇叔)으로 스승 삼아  
 지난 밝은 일을 일시에 깨치도다  
 진(秦)나라 아이들아 콧소리 말거라  
 오고태후 죽은 후에 뉘라서 대신하라  
 오패(五霸)의 마지막 임금 이름이 그 뉘신고  
 송양공(宋襄公)146 어진 이름 천고(千古)에 가소롭다  
 제경공(齊頃公)147 착하듯이 소백을 이어서  
 님최따 긴 송사를 만대(萬代)에 기약더냐  
 유위씨 작은 아이 큰 위를 안단 말인가  
 조최의 어진 아들 연륜이 두텁도다

도안가 모진 수단 조씨를 멸하니  
 다리 사이 꺾던 아이 울음소리 들었는가  
 영구의 의기(義氣) 충심(忠心) 목을 받아 살려내니  
 만고(萬古)에 드문 절개(節概)는 두 사람 뿐이로다  
 아깝다 연릉계자(延陵季子)148 어이 하여 도망치고  
 백양에 걸린 칼149이 지금에 삼연(森然)150하다  
 태백(泰伯)151의 큰 의거(義舉)를 이 자리 몇몇이나  
 고기 속에 감춘 칼이 교도 흉험(凶險)152하네  
 소관의 굳한 자취 초망을 벗어나서  
 사흘 밤 지난 후나 잘작수를 누가 전하리  
 노화를 물리치고 배 맨지 몇 날이니  
 요간의 칠성문을 바빠 굴러 무엇하리  
 맥반어갱 후한 정을 백년에 잊을소나  
 성명(姓名)을 묻지 마소 노중인 나 뿐일세  
 초평왕(楚平王)153 남은 님이 진녀(秦女)를 따라갔는가  
 오자서(伍子胥)154 채찍소리155 산하(山河)를 진동하네  
 오강에 떠는 치어 원성(怨聲)이 맺혀 있으니  
 동문에 걸린 눈156 있어도 못 보던가  
 저러산(苧羅山)157 아침 날에 완사(浣紗)158하는 저 미인아  
 고소대(姑蘇臺)159 취한 흥을 너 아니면 누가 돋우리  
 나라를 정한 후에 할 사업이 전혀 없네  
 오호주 좋은 경치를 너만 혼자 보려느냐  
 도주공(陶朱公)160의 밝은 소견(所見) 부자 되기 쉽건마는  
 초나라 저자 위에 아들을 못 살은가  
 열국(列國)이 분분하여 공여는 많거니와  
 현신을 헤아리면 진숙향정 자잔이  
 인외로 손부 삼아 덕행(德行)이 제일이라  
 공자(孔子)161도 인정하시니 하물며 후세(後世)야  
 사재(四宰)의 굳은 절(節)이 죽은들 없어지겠는가  
 거백옥(蘧伯玉)162의 수레 소리 궁문에 그쳤구나163  
 남관의 거문고는 초현을 골랐는데  
 새화에 매인 술취 가고 올 줄 모르는가  
 초산 넓은 길에 적설(積雪)에 막혔으니  
 행장(行裝)164을 떨쳐 내어 지기를 보낼 적에  
 묻노라 이 한 몸이 어디가 탁신(託身)165할고  
 천추(千秋)166에 높은 교복 탁신(託身)할 곳이로다  
 군산에 배를 옮겨 아미로 향하리다  
 삼강의 가을 달은 흰 비단이로다

고산(高山)은 높디 높고 유수(流水)는 넓디 넓으니  
 백아(伯牙)167의 좋은 곡조 종자기(鍾子期)168의 높은 감상  
 매양 진정이 금란(金蘭)169을 비겼더니  
 어찌하여 석상은 회금회를 깨치는가  
 초산에 우는 황앵(黃鶯)170 벗 부르는 소리로다  
 변화는 옥을 타고 월족자 되었던 말인가  
 들 속에 쌓인 보배 깎아내어 옥새(玉璽)로  
 만드노라 뇌힌듯 찾아갈 줄 모르시고  
 남자의 더러움은 부끄럽다 하려니와  
 어머니를 모해(謀害)171하고 아들을 내쫓음이  
 강상(綱常)172의 대변(大變)173이요 천지(天地)의 죄인(罪人)이라  
 아깝다 착한 사람 의리를 들었는가  
 깨지고 죽은 후에 짓갈로 담은 죄 무슨 일이고  
 분운(紛紜)174한 성패(成敗) 간에 티끌이 자욱하니  
 왕풍은 소지하고 일월(日月)이 화색한데  
 노담(老聃)175의 허(虛)한 말과 열자(列子)176의 미친 법이  
 일시(一時)에 병행(竝行)하여 인심(人心)을 흑하게 하니  
 슬프다 구주(九州)177 인민(人民) 금수(禽獸)와 마음이 맞도다  
 니구산(尼丘山)178 비는 정성 하늘이 감동하여  
 성인(聖人)을 내어두고 밝은 도를 궁구하게 하니  
 삼천 제자 거느리고 온세상을 철환(轍環)179하여  
 광인에게 옥을 보고 진취에 에워싸일 제  
 담담한 헛소리 행단(杏壇)180과 달을 것인가  
 크나큰 도덕을 어디서 용납할고  
 협곡(峽谷)에 큰 위험으로181 배를 버리시고  
 노국(魯國)의 빛난 정사(政事) 정묘(正卯)182를 죄(罪) 주시니  
 구십일 다스린 공 삼죄에 빛이 나네  
 시서(詩書)183를 들으시니 체격이 바르게 되었고  
 계사(繫辭)184를 지으시니 건곤(乾坤)이 바르도다  
 예악(禮樂)의 근본이요 정교의 으뜸이라  
 춘추(春秋)185 일부 책에 이 또한 태평이라  
 성인(聖人)의 하실 일은 그가 아니 다하시어  
 현원씨(軒轅氏)186 죽었으니 기린(麒麟)은 무슨 일이고  
 양염 큰 운수를 꿈속에 점복(占卜)187하니  
 새벽 달 긴 노래에 천운이 다하겠다  
 태산(泰山)이 꺾어지니 바랄 데 전혀 없다  
 삼년상 마친 후에 칠십 제자188 흩어지니  
 자공(子貢)189의 밝은 지혜 말 잘하기 자랑 말고

기사마위에 부귀(富貴)가 부운(浮雲)190이라  
 민자건(閔子騫)191의 큰 효도와 원헌(原憲)192의 가난하기  
 천고(千古)의 빛난 이름 민멸(泯滅)193할 줄 있을소냐  
 안자(顔子)194는 일찍 죽고 이단은 봉후하니  
 칠십년 깃든 도통(道統)195 누구에게로 전한단 말인가  
 천지(天地) 간 큰 의리 하늘을 꿰었으니  
 증삼(曾參)196의 넓은 학문 성인(聖人)을 이었구나  
 해 진 큰길가에 칼 품고 우는 사람  
 말마다 오열(嗚咽)197하고 소리마다 애원(哀怨)198하다  
 품속에 맺힌 설움 아미에 박혔으니  
 저자우 마른 고기 살기를 구할소냐  
 어지러운 풍진(風塵)199 속 효자의 정이로다  
 삼진(三晉)200 찬위(篡位)201하고 이 뒤는 미약하고  
 전국(戰國)202 때 어지럽기는 춘추(春秋)203 보다 더하도다  
 칠국(七國)204이 모두 일어나니 강약(強弱)을 겨룰 적에  
 부절 없는 나라를 업수이 여겼더니  
 상양(商鞅)205의 독한 법이 부국강병 했던 말인가  
 효함의 험한 지형 위수를 뒤를 돌려  
 삼천을 이어본들 구정을 옮길소냐  
 괴이(怪異)하다 초나라 소가 황금을 똥으로 누네206  
 길 닦는 삼장사야 나라 망하는 것을 재촉마라  
 이것을 모르는 육국(六國)207 왕은 변사에 녹락하여  
 아침에 맹세하고 낮에 병사를 내네  
 소진(蘇秦)208의 세치 혀로 강하(江河)를 기울이니  
 말만한 황금인(黃金印)을 다투어 내어주네  
 한 허리에 여인 여섯을 차고 향산에 돌아오니  
 벼들 위에 늙은 아내 나리지 마소서  
 어루는 저 아주머니 밥 지을 줄 모르시되  
 귀곡자(鬼谷子)209의 묘한 술법(術法) 산간에 높이 앉아  
 제자들을 놓아두고 일 없이 희롱하네  
 발 없는 풍마인이 도망하기 쉽던지  
 마능길 흰길시에 혼백(魂魄)이 날아간다  
 원상춘농 사공자(四公子)210야 식객(食客)211 모아 쓸 데 없다  
 함곡관(函谷關)212 지킨 군사 깊이도 잠들었네  
 야간에 우는 닭123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도다  
 평원군(平原君)214 부디 눈이 상보는 체 말아라  
 녹록(碌碌)215한 십구인(十九人)이 밥을 먹을 배 있으랴  
 아버지 살린 옛 은혜 꿈엔들 잊을소냐

군왕이 품은 옥인(玉印) 야간에 훔쳐내니  
 아깝다 늙은 장수 살길이 전혀 없다  
 이문에 늙은 노옹(老翁) 피를 뿌렸으니  
 춘신군(春申君)216 처음 공을 생각하면 크거니와  
 후방에 감춘 계집 어이하여 드렸던고217  
 배 속에 임신한 아이 천륜(天倫)218이 바뀌었네  
 어리석다 초회왕(楚懷王)219아 병갑(兵甲)220이 적다던가  
 상의 땅 육백리를 장외에 속아서 두고  
 호랑이 같은 진(秦)나라를 의심 없이 들어가니  
 굴원(屈原)221의 말을 들었던들 죽을까 싶으더냐  
 세상이 취한 가운데 홀로 깨어 거닐면서  
 창낭(滄浪)222 속 맑은 곳에 이소(離騷)223 높이 읊어  
 이몸을 어디 두리 어옹(漁翁)밖에 알 사람이 없다  
 초강(楚江) 어복(魚腹)속에 충혼(忠魂) 영장(永葬)224하네  
 회사정 비껴난 길에 물소리 더욱 슬프다  
 송옥(宋玉)225의 가는 넋을 부를소냐  
 양춘백설곡(陽春白雪曲)226을 누라서 화답하리  
 초양왕(楚襄王) 옛 자취 양대(陽臺)227에 가서 찾을소냐  
 저녁 비와 아침 구름228 뿐이로다  
 황금대 저 일층에 기대어 섰는 임금  
 죽은 말 뼈 살아올 적에 산 말인들 아니 올라  
 세노라 칠십여경(七十餘更)229 호음(號音)230사이에 항복 받고  
 주목성 너 운지가 몇해가 되었던 말인가  
 이문(里門)231에 서있는 어머니232 아들 오기 기다린다  
 저자의 말에 요치233를 죽인 뒤에  
 반야에 내달는 소는 화총의 정인가  
 천지(天地)가 진동하고 뇌정(雷霆)234 진첩(震疊)235하니  
 순수에의 비친 빛이 일시에 거두었네  
 뒷간에 버린 송장236 산정의 길을 보라  
 취객(醉客)의 오줌으로 불사약(不死藥) 삼아두고  
 유유(悠悠)237한 대답으로 진왕을 희롱하니  
 구슬 감춘 도적의 수단으로 나라조차 열어 보네  
 두 사람 하신 일이 마치 하나와도 같구나  
 두우의 한 치 칼로 백기(白起)238를 죽인 후에  
 채택239의 좋은 말이 정승을 사양하니  
 태조의 어두움을 그윽히 웃노라  
 오기(吳起)240는 살처(殺妻)241하고 악양(樂羊)242은 식자(食子)243하니  
 천고(千古)에 백행이라 잃을 것 없거니와

파목의 용병으로 못쓰니 할 일 없다  
 산하(山河)는 방자하고 어린 임금 전혀 없네  
 북소리 싸움의 티끌이 동서에 분분(紛紛)하니  
 요란하다 이 시절이 언제면 진정되리  
 전하는 말 믿지 마소 증삼(曾參)244이 살인(殺人)할까245  
 베틀의 북246 소리 첫 번째는 자약(自若)247더니  
 두세 번 반복할 때는 던지는 줄248 깨달을까  
 맹모(孟母)249는 세 번을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조회(照會)250하니 세상의 부인네들 귀 가지고 들어 보소  
 천의(天意)도 괴이하다 양성이 허소한데  
 당우(唐虞)251 옛 풍속을 또 어찌 얻어볼고  
 함관의 모진 누에 산동을 뽕으로 여겨  
 밤낮으로 다 먹으니 남는 잎이 있을소냐  
 한단(邯鄲)의 큰 장사252야 기화(奇貨)253를 알아보고  
 천금(千金)을 흠어내어 화양(華陽)254을 달랜 후에  
 자식 뱀 고운 첩 태자를 속여서 준다255  
 열두달 만에 아들을 낳을 줄 어이 알리요  
 육국(六國)256을 평정하고 만리장성(萬里長城)257 둘러치니  
 아방궁(阿房宮)258 사람이 영시였던가 내시였던가  
 아들은 천자(天子)되고 옛 첩은 태후(太后)되니  
 재상의 권세를 잡아 부귀가 극진하거늘  
 옛 정을 못 잊으니 조물이 꺼리도다  
 만권서(萬卷書) 타는 뱀새259가 천하에 가득하고  
 불사약(不死藥)260 캐러간 배 돌아올 기약 없네  
 박랑사(博浪沙)261 넓은 뜰에 우의도 거룩하다  
 사백근 첩퇴로 부거(副車)262를 뺏다 치니  
 포충의 장한 기운 구름 밖의 녀이로다  
 생포 실은 양기를 사구(沙丘)263로 바삐 몰아  
 천세(千歲) 만세(萬歲) 전할 계교(計巧) 조금 믿으니  
 궁중에 날랜 사슴 말이 되어264 놓였는데  
 따르는 호걸들아 누구 발이 빠른지고  
 구정을 드는 아이 중동을 부릅뜨니  
 강동 저자 팔천 영웅이 구름을 맞듯 바람이 일듯  
 함양(咸陽)265을 불 지르니 수달이 나타나네  
 태택의 늙은 용이 여웅의 사해로서  
 길가의 큰 뱀을 촌촌이 동강을 치니266  
 귀모의 울음 소리 야반(夜半)267에 오용하다  
 동향(同鄉) 옛 벗으로 승상을 삼아두고



황석공(黃石公)268 제자 얻어 묘책(妙策)을 의논하니  
 천하 대원수를 또 어디가 얻어 올고  
 성 아래 초모에게 빌어먹는 저 사람아  
 흥문연(鴻門宴)269 칼춤이 졸은듯만 여기느냐  
 춤 받는 한 소리에 만인(萬人)이 놀라겠다  
 초패왕(楚霸王)270 웅장한 기세 너 아니면 누가 당해내리  
 기소 땅 칠십옹(七十翁)271이 성년 후 주먹으로  
 옥주우을 깨뜨리니 나는 눈이 분분하다  
 진평(陳平)272의 악조구로 등창을 나게 하고  
 해하(垓下)273의 사면초가(四面楚歌)274 통소와 섞어 부니  
 우미인(虞美人)275 슬픈 노래 달빛 아래 애원(哀怨)276하다  
 오강(烏江)277에 해 다지니 천리마278도 아니 나아가네  
 전장에 꾸민 배를 건너랴 권하지 마소  
 강동에 부러진 돌을 다시 볼 낮이 없네  
 한(漢)279나라 사백년을 오늘부터 헤리로다  
 남궁의 대연 태상황께 헌수(獻酬)280하니  
 도마 위에 놀란 고기 국 한그릇 되었으면  
 이 술 한잔 먹어보기 생각하기 어렵도다  
 까다로운 영시법과 포려한281 위엄  
 겨우 겪고 남은 백성 천일을 얻어 보네  
 은주(殷周) 지난 후는 피란(避亂)282이 으뜸이라  
 고신이 다 죽으니 적송자(赤松子)283를 누가 따르리  
 상산(商山)의 네 늙은이284 자지 캐기 일과로다  
 척부인(戚夫人)285 졸은 말로 큰마음 먹지 마소  
 여의(如意)는 못 미치니 인체(人彘)286될 줄 모르는가  
 여후(呂后)의 서린 투기 밟을 날이 없겠느냐  
 마상으로 얻은 천하 마음대로 주장하니  
 자손에게 전하지 않고 여가(呂家)를 주려함287은  
 그 어인 뜻이런고 지금에 나는 모르겠다  
 경 모은 재물 무제(武帝)288는 허비하니289  
 신황290도 못 본 신선 얻어 볼까 여겼던가  
 소옹(少翁)291의 기이한 술법 죽은 사람 데려왔으니  
 이 부인 생전(生前) 태교가 마음속에 과연 같다  
 백만군사 치몰아서 흉노(匈奴)292를 몰아내니  
 건장궁(建章宮)293 천문만호(千門萬戶) 반공(半空)에 솟았으니  
 승로반(承露盤)294 높은 줄기 일억만 허비한다  
 강동의 무채가 태자를 모해하니  
 남호 놀라는 흰백 돌아갈 곳이 없네

꿈속에 백두음(白頭吟)295이 밝고도 곱구나  
 망자 되어 슬픈 바람 양낙궁에 어리었다  
 성왕을 업은 거동 그러서 누구에게 말기고  
 곽광(霍光)296처럼 믿음가는 신하 매양 나기 쉽겠는가  
 이렇게 인물들을 대강 헤어 보소  
 가태우 깊은 충성 이장군의 영룡으로  
 장사에 내쳐서 북정에 주어 있고  
 반도(蟠桃)297 따던 손이 급문에 숨었는가  
 해양의 어진 신하 부르는 것을 잊을소냐  
 전속의궁 굳은 마음 한절을 짚었으니  
 길 들이는 저 숫양이 언제면 새끼치리  
 상림원(上林苑)298 기러기가 편지를 전한단299 말인가  
 갈 적에 검었던 머리 백발이 되었노라  
 마천(馬遷)300의 문장이오 상여(相如)301의 사부(辭賦)302로다  
 장문(長文)으로 된 부(賦)에 임금의 마음이 다 풀리네  
 문군(文君)303이 주루가의 봉구황 한 곡조(曲調)로  
 반야에 따를 적에 실신이 극하거든  
 반첩여 지는 달에 백두음(白頭吟)은 무슨 일이고  
 성황의 음혹(淫慝)304하기가 주유왕(周幽王)305 짝이로다  
 반첩여 어진 덕이 추풍(秋風)의 단선(團扇)306이요  
 비연의 모진 불이 황자를 직접 쫓다  
 국력이 매우 약하고 지척이 전권(專權)307하여  
 효원황후(孝元皇后)308 한 사람은 본증으로 인처하고  
 천기를 잠깐 들어 하마터면 망할 뻔했으니  
 왕망(王莽)309의 손 가운데 십오년 옮긴 구정  
 백수진인(白水真人)310이 한 칼로 회복하니  
 남양(南陽)311의 등간소연 양정의 후신(後身)인가  
 무루정 공죽과 호타한 보리밥으로  
 장구(長久)히312 잊지 말기를 청하나니 그렇게 하니  
 어옹(漁翁)의 긴 다리를 배 위에 얹어 주니  
 천문(天文)이 어떠하기에 태사야 놀라느냐  
 조강(糟糠)313 옛 처자(妻子)를 한시도 안 잊나니  
 송홍(宋弘)314의 사양함을 착하게도 여기더니  
 음려화(陰麗華)315 행으로 곽후(郭后)316를 폐하시니  
 아깝다 밝은 거울 티끌이 끼이도다  
 한명제(漢明帝)317 밝은 소견 허탄(虛誕)318한 꿈을 믿어  
 이적의 일범으로 중구를 미혹하니  
 천지간 도덕으로 양목보다 심하도다

만고(萬古)의 문장으로 마천(馬遷)319을 내어내니  
 정장대의 어진 계집 오라비를 또 내었네  
 정한 전행으로 여가를 지어내니  
 도제가(道諸家)320의 착한 이름 만세에 전하도다  
 덕요의 추한 얼굴 양홍(楊弘)321의 짝이던가  
 황씨의 짧은 치마 녹기를 기파  
 태릉산 석전모유 은자의 지피로다  
 낙양성(洛陽城)322 화류(花柳)시에 굴 던지는 창녀들아  
 반공의 오늘 길이 시름을 못 이긴다  
 환관(宦官)323의 전총하기 손정(孫靜)324으로 비루 서서  
 십상시(十常侍)325 한 권을 대장군이 못 앗으랴  
 동탁(董卓)326의 머리석은 뜻이 왕명을 거역했네  
 배꼽에 놓은 등잔불이 백일 동안 밝았으니327  
 수풀에 반딧불이 중흥한 공이 된다  
 천운(天運)이 무심하여 적신(賊臣)328을 이어 내니  
 조조(曹操)329의 간사한 꾀 문왕을 본받을까  
 수선패 지을 이르고 아들330에게 가르쳤는가  
 도원에 피운 향불 한화를 이을 것이니  
 오장원(五丈原)331 흐르는 별 바빠도 떨어졌다  
 동오332 아이들아 분분 이구하지 마라  
 천하를 외만 여겨 세태 따라 무엇하리  
 장판교(長坂橋)333 적벽전(赤壁戰)334 만고(萬古)에 장(莊)하다 하나  
 촌간에 백발노고 아만(阿瞞)335을 아이보듯  
 버루를 높이 들어 붓을 섞어 치려하니  
 설상에 추양이요 흉중에 백일이나  
 장물 의논하면 서모가 제일이라  
 하늘이 심심하여 천하를 희롱하니  
 인걸을 모두 모아 한 때에 내어두고  
 사해(四海)336에 검극(劍戟)337이요 구주(九州)338에 정기로다  
 초목은 핏빛을 띠고 산하(山河)는 뼈가 되니  
 깊은 꾀 넓은 슬기 귀신인들 어이 알며  
 날랜 용장(勇將) 큰 힘을 조화도 못 겨루네  
 창창한 저 상제야 내 한 말 들어보소  
 동여(董呂)339를 저어하여340 초선(貂蟬)을 내었거니  
 주유(周瑜)341 격동하러 교씨(橋氏)342를 내었나니  
 매형의 미친 척으로 조조(曹操)343를 완동하고  
 우길의 도법으로 손책(孫策)344을 속였으니  
 소열(昭烈)345이 내는 뜻은 회복할까 여겼더니

덕조를 만나보되 못 일어나게 하고  
 서서를 얻었다가 종시에 잃게 하니  
 봉추는 즉시죽에 와룡(臥龍)346만 혼자 남겨  
 강태공(姜太公)347과 주공(周公)348의 일을 한 몸에 겸하여서  
 맹획(孟獲)을 칠금(七擒)349하여 재주를 나타내고  
 기산(祁山)에 육출(六出)350하여 대의를 밝혔으나  
 삼대(三代)351적 태평을 못하게 하는 일은  
 그 어인 조화이신고 아마도 나는 모르겠다  
 천고영웅 눈물 흘릴 뿐이라  
 한 구유 서말거리 역수가 돌아갔는가  
 일시에 속였으나 자손에게 하라 하라  
 허랑(虛浪)하다 죽림칠현(竹林七賢)352 착한 체 너무 하지마소  
 쓰러져 가는 집을 붙들어 보아라  
 사막에 두 청의는 행주도 공순(恭順)353하다  
 은교는 절기하고 조적은 걱정하니  
 성진을 말해볼가 오히려 맹세하여  
 자다가 닭 울음소리에 춤추는 유월석이  
 시절(時節)이 저러하니 너이 재주 거짓 것이로다  
 낙양제자 고소객아 풍류만 희롱마소  
 곡강의 좋은 흥이 일시에 사라지네  
 석계총 쌀은 황금 어디로 갔단 말인가  
 녹주(綠珠)354를 아끼다가 모조리 죽였느냐  
 하정에서 우는 학을 어이 하여 들어볼고  
 해숙야 광릉산이 끊긴들 누가 이르리  
 술집에 아이들아 도적 잡고 좋아 말아라  
 동낙집에 니부시랑 밤에 온 줄 모르느냐  
 동상수 큰 사람은 가랑을 점복하니  
 될진도 좋은 체격 글쓰인 종이로다  
 남쪽으로 걷는 말이 용이 되어 무엇하리  
 조정을 처음 열고 복수에 뜻이 없어  
 형극(荊棘)에 누은 동타(銅駝)355의 잠깐이나 생각하고  
 신정의 모든 손이 눈물지으면 무엇하리  
 첨담을 일 삼으니 너히는 편하거니와  
 백여년 빠른 세월 간과(干戈)356 중 지나겠다  
 말만한 황금인을 너 죽이고 얻으면  
 이백인이 죽은 후에 탄식한들 무엇하리  
 높구나 팽택영357아 성명(姓名)이 무엇인고  
 오두미 위하여 긴 허리를 굽힐소냐358

세상의 달은 문을 언제나 열어 불고  
 남북359 조용함은 춘몽(春夢)과 다르겠느냐  
 일어나는 듯 망하는 듯 제송이 얼핏이라  
 사면의 오랑캐 오열국(五列國)360의 황제로다  
 오음(鳴泣)361하다 장무제는 부처의 제인가  
 일종의 나물밥이 요망하게 극진하거늘  
 면으로 만든 양이 송문조차 속이겠다  
 부처도 야속하시어 대성이 아사(餓死)할 적  
 한 그릇 음식으로 구할 것 아니었나  
 진패선(陳霸先)362의 욕심으로 대우는 앗으시나  
 천명이 아니니 복포가 어기겠는가  
 장여화 고운 얼굴 후정화(後庭花)363 한 곡조로  
 호탕한 진후주(陳後主)364을 유혹하기 어려우랴  
 한금호의 한 싸움에 수(隋)나라365가 되었구나  
 수양제(隋煬帝)366 진부인367은 누구만 낙지가는  
 다주고씨368 모진 투기 황제도 두려워하니  
 시부(弑父)369한 몸쓸 자식 왕위에 올라  
 겨울에 그린 꽃이 지는 듯 피는구나  
 십육원 좋은 경치는 사시(四時)에 봄과 같고  
 미루정 제일층에 선악이 자아졌다  
 강하(江河)로 길을 여니 구년수 졌던가  
 당(唐)나라 성(城)을 다시 쌓은들 오랑캐 길 없을소냐  
 청야유 한 곡조를 얼마나 즐기시고  
 용주를 뜰 곳에 듣기 싫은 전고 소리  
 고고히 일어나니 격서를 내었더냐  
 취몽(醉夢)을 다 못 깨어 처히를 옮겨 가네  
 이연(李淵)370의 큰 뜻으로 세민(世民)371을 두었거든  
 천명과 인심이 다른 데로 아니 가리  
 활달함은 한고 같고 신무는 위도 같고  
 탕무의 정벌(征伐)과 성강의 전성함을  
 태종(太宗)372이 경하니라 선유시에 기렸으나  
 허무문에 뿌린 피가 못 미쳐 말랐거든  
 궁중에 낳은 왕자 누구의 자식이었던 말인가  
 옥루 새벽달에 암탉이 우니  
 독 속에 취한 뼈 가루되어 무엇하리  
 우물이 되로 나니 음풍이 언제 깔고  
 녹산의 비단개세 동방을 꾸며 두고  
 청평사 한 곡조를 좋은 흥만 돋우더니

어양비 고성에 우의곡 간 데 없다  
 뱃속의 말자 마음 적심이 되었던 말인가  
 마위가 되는 꽃을 봉래(蓬萊)373 가서 찾아보소  
 아미산(蛾眉山)374 가는 노새 누구라서 도로 당길고  
 곽자의(郭子儀)375 광필376아 너 아니면 어찌 할고  
 아깝다 수양태수 윤자에게 죽었던 말인가  
 노회청 큰 절 월만춘과 다름이 있으라  
 이적선(李謫仙)377 두공부(杜工部)378는 문장도 기이(奇異)하다  
 이 때에 있을 것이 이 밖에 무엇이리  
 이임보(李林甫)379는 전권(專權)380하고 장구령(張九齡)381을 내치니  
 이 또한 하늘의 뜻으로 원망하여 무엇하리  
 요송(姚崇)382의 큰 그릇과 송경(宋璟)383의 착함으로  
 방강을 이었으니 태평할까 여겼더니  
 쇠운(衰運)384이 점점 오니 불행할 뿐이로다  
 한문공(韓文公)385 학문으로 대의를 채웠도다  
 팔이의 쇠한 줄을 일도에 일희여서  
 이 명문(名文) 큰 공업(功業)이 세상을 불드니  
 불골표 한잘장에 팔천이 표주로다  
 삼백년 다 못 채워 어디가 되었던 말인가  
 아침에 꿇은 무릎 저녁에 남연하고  
 어제 이룬 사업 오늘날 터도 없네  
 청천(靑天)에 뜬 구름 경각(頃刻)386에 없어지듯  
 손바닥 뒤집듯이 이토록 쉬울런가  
 우습다 풍도(馮道)387 여의는 다섯 임금을 다 섬겼네  
 이 재상도 졸거니와 부끄럽지도 아니하던가  
 자교에 취한 몸을 황포로 누가 덮었는고388  
 화산(華山)389에 저는 나귀 풍진을 향하다가  
 소식이 어찌하기에 창황히 떨어졌네  
 대송(大宋)390의 평온함은 한당(漢唐)을 부러워하라  
 조보(趙普)391의 포은계교 병진을 다 거두니  
 선장조 추밀아 너무 원망하지들 말아라  
 한신(韓信) 팽월 죽은 일392은 너도 아니 보았느냐  
 신선은 허탄(虛誕)하니 천세를 맛보겠는가  
 탕흥의 좋은 말씀 현신을 다회하니  
 뇌주성 대수풀에 내공을 존상(尊尙)393하며  
 왕안석(王安石)394 기축학문 속수도 속으셨는가  
 소동파(蘇東坡)395 문장을 훌륭하다 하려니와  
 일시에 잘못 할 일 민락을 골랐구나

성인(聖人)의 큰 도통(道統)396을 하람으로 전하도다  
 명도이천 돌아가신 후 주부자(朱夫子)397가 또 나오시니  
 강묵에 지은 시문 춘추의 필법(筆法)이요  
 칠석의 주(註)를 내니 성학에 더욱 막혀  
 천진에 우는 뒤경 서두르신이 누구신고  
 영산에 두 속려398 돌아올 기약 없네  
 강남의 군신(君臣)들아 반계서 은지패라  
 오린의 장한 용맹(勇猛)과 한세충(韓世忠)399 묘략(妙略)400이  
 아침에 싸우다가 저녁에 헤어지니  
 간신의 작용이라 회복할 길 전혀 없네  
 동창에 가는 말씀 누가 열어나 볼고  
 악무목(岳武穆)401 정충기를 무엇하려고 나섰던고  
 애산에 지는 해를 편주(片舟)에 실어다가  
 육부에 가득한걸 어디로 저어갈고  
 문승상의 외로운 몸 오국성 흠이 되었나  
 온 천하에 비린내를 백여년 끼쳤더니  
 진인이 잠을 깨어 곽자흥(郭子興)402의 애서되니  
 진황후 기문화약 경상도 기이(奇異)하나  
 육기로 양양 삼고 서달(徐達)403로 한신 삼아  
 필부(匹夫)404로 일어나서 중원을 소탕하니  
 명조(明朝)405의 공열이야 한고와 일반이나  
 상자에 넣은 가사 바빠 입고 어디가는고  
 북으로부터 오는 제비 황성으로 날아드니  
 불쌍하다 방효유(方孝孺)406야 구족(九族)407은 무슨 죄인가  
 경청의 품은 칼 쓸 데 없네  
 수백년 겨우 내려와 산회관 누구인가  
 진황이 장성을 쌓음은 방호할 계교(計巧)로서  
 몇 번 회내 백성이 이적이 되었단 말인가  
 사람이 늙은 후에 소년의 일 하려고 하나  
 근력이 다 쇠한 후 또 다시 못하니  
 하늘도 그러하여 세대로 강쇠(強衰)한가  
 인간에 나는 사람 충분히 내도하니  
 재덕(才德)을 비교하면 점점 못 따르거든  
 시절(時節)이 어이 하여 그럴지 않을소냐  
 삼황오제(三皇五帝)408는 오히려 상고(上古) 때라  
 너무나 순박하고 일척만 여기겠으니  
 당우(唐虞)409 하은주(夏殷周)는 모든 일이 극진하여  
 사람에 이상심의 강장함과 서로 같네

새겨 들은지가 오륙년이 거의 되어  
 태어나기를 늦게 낳으니 옛 시절을 얻어 볼고  
 변사는 전국(戰國) 때요 문한은 진한 시절이라  
 당나라 때의 많은 시객(時客) 송나라 시절의 여러 유현(儒賢)  
 말세(末世)에 나는 사람 따라 본받을 이 전혀 없네  
 당론이 일어나서 살별을 서로 이리  
 한(漢)부터 시작하여 당(唐)에 와 심하더니  
 송(宋)나라 대에 다다라서는 공극(孔劇)410함을 다 이르라  
 불법(佛法)이 허탄(虛誕)하여 인심(人心)을 미혹하니  
 한나라 말에 서역(西域)에서 중국에 들어오니  
 대(代)마다 숭상하여 깨달은 이 누가 있는고  
 무함이는 지오라 삼대제도 이었거니와  
 시속(時俗)411이 치치하여 믿다가 패가(敗家)412한다  
 열에서 아홉이 다 경계할 곳이로다  
 태어난 후부터 주역(周易)413을 만들어서 점치는 법을  
 알아내어 후일 미리 아니 성현도 믿으시니  
 업신여기진 못할 것인데 용렬(庸劣)414한 복자(卜者)415의 말  
 혹하고 믿는게 옳겠는가 신선(神仙)이 있다 하나  
 황당하고 허무하거늘 영웅 호걸들도  
 속는 이 또 많도다 도사(道士)의 환술(幻術)416하기  
 이것만 괴이하랴 왕왕(往往)417이 시험하여  
 사기에 분명한데 술업(術業)418이 천미(賤微)419하나  
 전하는 이 없으니라 사람의 관상(觀相)을 보아  
 궁달(窮達)420을 단정(斷定)421하고 맥을 짚어보고 병을 알아  
 약 먹여 고쳐내니 잡술(雜術)이 분분하여  
 어찌 다 기록하리 길흉(吉凶)은 하늘에 있고  
 사생(死生)이 다 명(命)이라 만고(萬古)를 헤아리니  
 오래 살 일 많아라 수요단(壽夭短)422이 참치부제하니  
 만물(萬物)과 사람이 수유간(須臾間)423 흔적이라  
 큰 추수 하여 보세 이 천지에 얼마나 살고  
 동고란 적은 타차 널위에 구으니  
 터고야 조촉 말아라 춘추를 어이 알아  
 니요 때 조의화가 책력(冊曆) 424 내었던 말인가  
 경자(庚子) 이월(二月) 십이일(十二日) 필서(筆書)하노라  
 글씨라 하는 것은 천이 굴이 굴이면  
 어른에 대한 공경이 아니니 젊은 아이들  
 조심할지어다 삼가 조심하여  
 자자손손(子子孫孫) 내려 어른의 글씨를 중하게 여길지어다



춘정월(春正月)에 시작하였노라  
계묘(癸卯) 삼월(三月) 초팔일(初八日) 등서(騰書)  
오월(五月)  
자손이 무궁 오해 두고 볼 지어다 조심조심

五月不熱∞ 清秋

五明扇把彈五絃 南董殿上梧桐秋  
江城雨歇落梅花 庭樹風來班竹枝  
颼颼一陣手中生 赤帝乾坤行白帝  
時當五月苦炎熱 安得◆中麥籟秋  
披衿柳陰未生涼 露頂松風難却暑  
平頭起把造化扇 陳陳清風來故人  
東山吹送謝安葵 北窓噓來靖節枕  
茶烟歇處酒亦醒 颯颯涼颼如有情  
飄然攪我午窓夢 是◆何時忌却夏  
人人何處汗沾衣 物物冬朝清滿袵  
團團白羽奪化權 翁得麻頭一扇秋  
依稀蘓子羽化仙行佛張張順飛時  
華堂醉客最先聞 風自何來聲在樹  
紅爐氣像戶外天 白露續神床上世  
時維三夏屬三冊 童子何知翁白冊

[각주]

- 1) 태극(太極) : 역학(易學)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이 생긴 근원이라고 보는 본체(本體).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기 전의 세상 만물의 원시(元始)의 상태.
- 2) 음양(陰陽) : 음양(陰陽)
- 3) 천문(天文) : 우주와 천체의 온갖 현상과 그에 내재된 법칙성.
- 4) 오행(五行) : 우주간에 운행하는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다섯 원기(元氣). 오행 상생(相生)과 오행 상극(相剋)의 이치로 전 우주 만물을 지배한다고 함.
- 5) 형형색색(形形色色) : 형상과 빛깔 따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 6) 주수비금(走獸飛禽) : 길짐승과 날짐승. 곧 미물(微物)의 총칭. 비금주수(飛禽走獸)와 같은 말.
- 7) 편벽(偏僻) : 중심에서 떨어져 구석짐.
- 8) 건곤(乾坤) : 하늘과 땅. 세상천지와 같은 의미.
- 9) 외외(巍巍) : 인격이 높고 뛰어남.
- 10) 범인(凡人) : 평범한 사람.
- 11) 녹록(碌碌) : ①평범하고 보잘것없음. ②만만하고 상대하기 쉬움.
- 12) 물욕(物慾) : 재물을 탐내는 마음.
- 13) 칠규(七竅) : 사람 얼굴에 있는, 귀·눈·코의 각 두 구멍과 입 한 구멍을 합한 일곱 구멍.
- 14) 반고씨(盤古氏) : 중국 태고(太古)시대 전설상의 천자(天子)로, 혼돈씨(混沌氏)라고도 부름. 천지개벽의 처음에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사람이라고 함. 이 반고씨가 죽어서 머리는 사악(四岳)이 되고, 눈은 해와 달이 되고, 기름은 강과 바다가 되고, 털은 초목이 되었다고 함.
- 15) 천황씨(天皇氏) : 중국 전설상의 맨 처음 세 임금인 삼황(三皇) 중의 하나. 오행(五行) 중의 첫째인 목덕(木德)으로 왕이 되었으며, 백성들이 질박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무위이화(無爲而化)를 이루었고,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고 함.
- 16) 지황씨(地皇氏) : 중국 전설상의 맨 처음 세 임금인 삼황(三皇) 중의 하나. 천황씨(天皇氏)의 뒤를 이어 오행(五行) 중의 두 번째인 화덕(火德)으로 왕이 되었으며, 형제가 역시 12사람인데 각각 18,000년을 다스렸다고 함.
- 17) 인황씨(人皇氏) : 중국 전설상의 맨 처음 세 임금인 삼황(三皇) 중의 하나. 형제가 아홉 사람인데 구주(九州)로 나누어 다스렸으며,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받아 150대에 걸쳐 전후 합 45,600년을 다스렸다고 함.
- 18) 구주(九州) : 중국 고대에 전국을 나눈 9개의 주.
- 19) 유소씨(有巢氏) : 고대 중국의 전설상 임금으로, 삼황(三皇) 중의 하나인 인황씨(人皇氏)의 뒤를 이어 세상을 다스렸음.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사는 것을 보고, 사람에게 집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함.
- 20) 수인씨(燧人氏) : 고대 중국의 전설상 임금으로, 복희씨(伏羲氏) 이전의 인물. 불을 사용하는 법과 식물(食物)의 조리법을 전했다고 함.
- 21) 태호(太昊) 복희씨(伏羲氏) : 고대중국의 전설상 임금들인 삼황오제(三皇五帝)의 하나. 성은 풍(風)이고, 뱀의 몸뚱이에 사람의 머리 형상을 가졌다고 함. 팔괘(八卦)를 그리고 서계(書契)를 만들었으며, 그물을 발명하여 어업·수렵·목축을 가르쳤다고 함.
- 22) 사신인수(蛇身人首) :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 복희씨(伏羲氏)를 가리킴.

- 23) 팔괘(八卦) : 중국 상고 시대에 복희씨가 지었다는 여덟 가지의 괘. 『주역』에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치어 여덟 가지의 상으로 나타낸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을 이룸.
- 24) 서계(書契) : 글자로 사물을 표시하는 부호.
- 25) 혼례(婚禮) : 혼인의 예절.
- 26) 육축(六畜) :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가축. 곧 소·말·돼지·양·닭·개를 가리킴.
- 27) 공공(共工) : 고대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제위(帝位)를 놓고 전욱(顓頊)과 다투다가 불주산(不周山)의 천주(天柱)를 꺾어 쓰러뜨림. 이 때문에 하늘은 서북으로, 땅은 동남으로 기울고, 해와 달과 별은 서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함.
- 28) 불주산(不周山) :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산으로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함.
- 29) 여와씨(女媧氏) : 중국 상고시대 전설상의 임금으로 복희씨(伏羲氏)의 누이. 복희씨(伏羲氏)가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笙簧(笙簧)을 만들어 음률을 펼쳤다고 함.
- 30) 오색 돌로 하늘에 기웠도다 : 공공씨(共工氏)가 화가 나서 머리로 불주산(不周山)을 들이받아 하늘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지자, 여와씨가 오색의 돌을 단련해서 기울어진 하늘을 다시 기워서 하늘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고 함.
- 31)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 : 고대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복희씨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고 함. 백성에게 쟁기와 비슷한 따비를 만들어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음. 백초(百草)를 맛보아서 의약을 만들고, 설시(設市)하여 상거래(商去來) 매매법(賣買法)을 이루었다고 함. 인신우수(人身牛首)였다고 함.
- 32) 인신우수(人身牛首) : 사람 몸에 소의 머리. 신농씨를 가리킴.
- 33) 저자 : 시장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또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가게.
- 34) 현원씨(軒轅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곡물 재배를 가르치고 문자·음악·도량형 따위를 정하였다고 함.
- 35) 육갑(六甲) : 육십갑자 즉 천간(天干)의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와 지지(地支)의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를 순차로 배합하여 예순 가지로 늘어놓은 것.
- 36) 책력(冊曆) : 일 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날의 순서에 따라 적은 책.
- 37) 서릉씨(西陵氏) : 양잠(養蠶)하는 법을 시작하였다는 신(神). 선잠(先蠶).
- 38) 울흥(蔚興) : 성(盛)하게 일어남.
- 39) 의의(猗猗) : 아름답고 성함.
- 40) 금천씨(金天氏) : 소호(少昊). 고대 중국 전설상의 제왕. 황제(黃帝)의 아들. 금덕(金德)으로써 왕이 되었으므로, 후세에 가을을 다스리는 신으로 모심. 곡부(曲阜)에 도읍하였는데, 재위 84년.
- 41) 고양씨(高陽氏) : 전욱(顓頊). 고대 중국의 다섯 성군(聖君)인 오제(五帝)의 한 사람으로 황제(黃帝)의 손자. 황제에 이어 20세에 즉위하여 처음 고양(高陽)에서 나라를 일으켰으므로 고양씨라 불렀음.
- 42) 제국(帝嚳) 고신씨(高辛氏) : 고대 중국의 다섯 성군(聖君)인 오제(五帝)의 한 사람으로 전욱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름. 『사기』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함.
- 43) 신령(神靈) : 신기하고 영묘함.
- 44) 제요(帝堯) : 요(堯)임금. 중국 고대의 오제(五帝) 중 한 사람. 제국 고신의 아들로 당요(唐堯) 또는

제요도당(帝堯陶唐)으로도 부름. 아들인 단주(丹朱)가 어리석으므로, 순(舜)에게 왕위를 양위함. 순(舜)과 함께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짐.

45) 치정(治定) : 잘 다스려 안정시킴.

46) 강구(康衢) : 사방으로 두루 통하는 변화한 큰 길거리.

47) 강구(康衢)에 격양(擊壤)하여 : 요(堯)임금이 자기의 정치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저자거리에 나갔다가, 임금의 존재조차도 모를 정도로 태평스런 삶을 살고 있다는 노래를 들었다는 고사(故事)를 말함. 그 노래를 격양가(擊壤歌)라고 함.

48) 허유(許由) :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인물.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받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여 영수(潁水) 물에 귀를 씻고 기산(箕山)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함.

49) 기산(箕山) : 중국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동남쪽에 있는 산. 요임금 때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숨어살던 곳.

50) 영천(潁川) : 중국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에 있는 강 이름. 허유가 귀를 씻었다고 함.

51) 소부(巢父) : 고대 중국 요임금 시절의 은자. 요(堯)임금이 그에게 나라를 맡기고자 하였으나 이를 사양하고 받지 않았음. 허유(許由)가 영천에서 귀를 씻고 있는 것을, 소를 몰고 온 소부(巢父)가 보고서 그러한 더러운 물은 소에게도 마시게 할 수 없다며 돌아갔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52) 소허(巢許) : 허유와 소부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

53) 단주(丹朱) : 요임금의 아들.

54) 불초(不肖) :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

55) 쇠모(衰耗) : 쇠퇴하여 줄어듦.

56) 고수(瞽臆) : 순임금의 아버지. 장님이었다고 함.

57) 완한 마음 :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마음.

58) 제순(帝舜) : 요임금의 뒤를 이은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천자 ‘순(舜)’을 가리킴. 오제(五帝) 중 한 명. ‘유우씨(有虞氏)’, ‘우순(虞舜)’로도 불림. ‘요(堯)’와 함께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며, ‘요순(堯舜)’이란 표현은 태평시대를 의미함.

59) 대효(大孝) : 지극한 효도, 또는 지극한 효자.

60) 모해(謀害) : 꾀를 써서 남을 해침.

61) 상(象) : 순임금의 이복동생. 『사기』에 따르면, 순은 계모와 이복동생 상(象)의 미움을 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해당할 뻔하였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효행의 도를 다하였다고 함.

62) 역산(歷山) : 중국 산둥성(山東省) 만남(滿南)의 교외에 있는 산 이름. 순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 이곳에서 밭을 갈았다고 함.

63) 고요직설(皐陶稷契) : 모두 순임금의 신하로, 고요(皐陶)는 순(舜)임금 때의 옥관장(獄官長)이었던 요(陶)를 말함. 설(契)은 은(殷)나라의 시조(始祖)로, 순임금 때 교육(教育)을 맡았음.

64) 팔원팔개(八元八愷)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인물인 고양씨(高陽氏)의 여덟 재자(才子)와 고신씨(高辛氏)의 여덟 재자(才子) 등 16명의 선인(善人)을 말함. 원(元)은 선(善), 개(愷)는 화(和)의 뜻임.

65) 남훈전(南薰殿) : 순임금이 남풍시를 짓고 오현금을 타던 궁전.

66) 오현금(五絃琴) : 순임금이 만들어 남풍시를 타던 악기.

67) 남풍지훈혜(南風之薰兮) : 순(舜)임금이 오현금(五絃琴)을 타며 읊었던 노래인 <남풍가(南風歌)>의 첫 구절. 전문은 다음과 같음.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愠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

- 68) 창오산(蒼梧山) : 중국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순임금이 남쪽을 순행하다 붕어(崩御)했다는 곳임. 구의산(九疑山)이라고도 함.
- 69) 이비(二妃) : 요(堯)임금의 두 딸이자 순(舜)임금의 두 부인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가리킴. 순이 임금이 된 후, 남쪽 지방을 순행(巡幸)하다가 창오산(蒼梧山)에서 죽자, 두 비(妃)는 슬픔에 겨워 상수(湘水)까지 갔으나 배와 함께 수장되고 후에 상수의 신령이 됨.
- 70) 소상강(瀟湘江) : 소수(瀟水)와 상수(湘水). 경치가 매우 좋아서 소상팔경(瀟湘八景)이라는 이름이 있음. 이곳에서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순임금의 죽음을 애도하며 물에 빠져 자결했기에 두 왕비의 묘가 있으며, 그들이 흘린 눈물이 피가 되어 붉은 반점이 생겼다는 반죽(斑竹)이 유명함.
- 71) 구년수(九年水) : 구년지수(九年之水). 중국 요임금 시절에 9년 동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 하는 고사(故事)를 말함.
- 72) 가로말아 : 남의 할 일을 대신해서 말아.
- 73) 구주(九州) : 중국 고대에 전국을 나눈 9개의 주.
- 74) 분주(奔走) : 몹시 바쁘게 뛰어다님.
- 75) 우순(虞舜) : 순임금을 가리킴.
- 76) 당요(唐堯) : 요임금을 가리킴.
- 77) 상균(商均) : 순임금에게도 상균(商均)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현명하지 못해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지 않고 치수사업에 공적이 큰 우(禹)에게 왕위를 이양하였음.
- 78) 불초(不肖) :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
- 79) 단주(丹朱) : 요임금의 아들.
- 80) 공변된 : 행동이나 일 처리가 사사롭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 81) 하우(夏禹) : 하우씨(夏禹氏). 중국 전설 속의 제왕. 하(夏)는 나라 이름이고, 우(禹)는 이름임. 요임금 때에 9년 동안 비가 내려 황하가 범람하자, 이를 잘 다스려 13년 만에 큰 공을 이루고, 순임금이 죽자 왕위를 물려받아 나라 이름을 하(夏)라고 하였음.
- 82) 전위(傳位) : 임금 자리를 후계자에게 전하여 줌.
- 83) 망극(罔極) : (임금이나 어버이의) 은혜가 끝이 없음.
- 84) 계(啓) : 우임금의 아들로 우임금이 죽자 제후(諸侯)의 추대로 하나라 2대왕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천자자리를 세습화하여 하왕조가 시작되었음.
- 85) 잔열(孱劣) : 가냘프고 변변하지 못함.
- 86) 하갈(夏桀) : 하(夏)나라의 걸왕(桀王). 갈(桀)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매우 포악무도(暴惡無道)하여, 탕왕에 의해 토벌되었음.
- 87) 경궁요대(瓊宮瑤臺) : 아름다운 구슬로 꾸민 궁궐과 대(臺).
- 88) 은왕성탕(殷王成湯) : 은(殷)나라를 창건한 탕왕을 지칭하는 말. 하(夏)의 걸왕(桀王)을 내쫓고 천자(天子)의 위(位)에 올랐음. 박(亳)에 도읍하여 국호를 상(商)이라 정하고, 제도(制度)와 전례(典禮)를 잘 정비하였음.
- 89) 사해(四海) : 온 세상.
- 90) 참괴(慙愧) : 매우 부끄러워함.
- 91) 칠년을 대한(大旱)하니 : 은나라 탕왕 때에 있었던 칠 년 동안이나 내리 계속된 큰 가뭄.
- 92) 구년수(九年水) : 중국 요임금 시절에 9년 동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

하는 고사(故事)를 말함. 본문에서는 탕임금이 하늘에 빌어 큰 비를 내리게 한 것을 의미함.

93) 용군(庸君) : 어리석고 변변하지 못한 임금.

94) 상주(商紂) : 은(殷)나라의 주(紂)왕. 주(紂)는 은(殷)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하(夏)나라의 걸(桀)왕과 함께 악덕천자(惡德天子)의 대표적인 존재로 인식됨. 상(商)는 은(殷)나라의 본디 명칭임.

95) 하걸(夏桀) : 하(夏)나라의 걸왕(桀王). 걸(桀)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매우 포악무도(暴惡無道)하여, 탕왕에 의해 토벌되었음.

96) 구리 기동 건다가 불속에 떨어지는 거동 : 주왕과 달기는 구리 기동에 기름을 발라 숯불 위에 걸쳐 놓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 하여 미끄러져서 타 죽게 하는 포락(炮烙)의 형을 구경하면서 웃고 즐겼다고 함.

97) 달기(妲己) : 중국 은나라 주왕의 비(妃). 왕의 총애를 믿어 음탕하고 포악하게 행동하였는데, 뒤에 주나라 무왕에게 살해되었음. 망국의 악녀로 불림.

98) 비간(比干) : 은(殷)나라의 충신. 주왕의 포악함을 간(諫)하니, 주왕이 비간을 미워하여 성인(聖人)의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는데 과연 있나 보자고 하면서 비간의 심장(心臟)을 꺼내어 죽였다고 함. 기자(箕子)·미자(微子)와 더불어 은(殷)나라의 삼인(三仁)이라 일컬어짐.

99) 구후(九侯) : 은나라 주왕(紂王)을 보좌하던 삼공(三公) 중 한명. 주왕(紂王)은 구후의 딸이 매우 아름답다는 소식을 듣고 강제로 데려와 비에 책봉했으나 그녀는 주왕의 음탕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노여움을 사서 죽임을 당했음.

100) 젓 담글 제 : 구후는 아름다운 딸을 주왕(紂王)의 황후로 들였으나 죽음을 당하고, 구후 자신도 주왕에게 죽음을 당하여 그 시체는 젓으로 담가짐.

101) 기자(箕子) : 중국 상(商)의 군주인 문정(文丁)의 아들로 주왕(紂王)의 숙부(叔父)임. 주왕(紂王)의 폭정(暴政)에 대해 간언(諫言)을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친 척을 하여 유폐(幽閉)되었음.

102) 미자(微子) : 주왕(紂王)의 이복형으로 주왕(紂王)의 폭정(暴政)에 여러 차례 간언(諫言)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우인 자연(子衍)과 함께 상(商)나라를 떠나 봉지(封地)인 미(微)로 돌아갔음. 비간(比干), 기자(箕子)와 함께 상(商) 말기의 세 명의 어진 사람[三仁]으로 꼽힘.

103) 비자(比子) : 비간(比干)을 가리킴.

104) 유리에 가두어져 젓 먹은 이 : 주나라 문왕(文王)이 된 서백(西伯)을 가리킴. 주왕(紂王)은 서백을 유리의 옥에 가두었는데, 서백의 가신들이 미녀와 보물을 주왕에게 바치자 그를 석방시켰음.

105) 위천(渭川) : 위수(渭水). 인재를 찾아 떠돌던 주나라 서백(주나라 문왕이 됨)이 강태공을 만난 곳. 서백은 강태공과의 문답을 통해 인물됨을 알아보고 주나라 재상으로 등용하였음.

106) 어옹(漁翁) : 고기 잡는 늙은이. 본문에서는 강태공(姜太公)을 가리킴. 강태공은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제(齊)나라 시조가 되었음.

107) 주문왕(周文王) : 서백(西伯). 주(周)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은 명군으로 무왕의 아버지임. 그가 죽은 뒤, 아들 무왕이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창건하였으며, 그에게 문왕이라는 시호를 추존하였음.

108) 창생(蒼生) : 세상의 모든 백성.

109) 자모(慈母) : 자애로운 어머니.

110) 수양산 고사리 : 중국 은나라 때의 처사(處士)인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에 얽힌 고사. 주(周)의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치러 출정할 때 백이와 숙제가 말머리를 두드리며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말려도



듣지 않자,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다가 죽었다고 함.

111) 적덕(積德) : 덕을 쌓음.

112) 후직씨(后稷氏) : 중국 주왕조(周王朝)의 전설적 시조. 농경신(農耕神)으로 오곡의 신이기도 함. 거인의 발자국을 밟은 뒤 잉태하고 낳아 불길하다 하여 세 차례나 버려졌으므로 기(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함. 요임금을 섬긴 뒤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후직(后稷)이라는 벼슬에 오름.

113) 고공단보(古工奩父) : 주무왕(周武王)의 증조부. 기산(岐山) 기슭에서 덕을 닦아 주나라의 기반을 이루었음. 추존(追尊)하여 태왕(太王)이라고 함.

114) 태강(太姜) : 고공단보의 아내로 현모양처의 거울임. 태강, 태임, 태사를 일컬어 '주실삼모(周室三母)'라고 함.

115) 태임(太任) : 주(周) 나라 왕계(王季)의 비(妃)이며 문왕(文王)의 어머니로, 현모(賢母)의 대표임.

116) 태사(太姒) : 태사(太姒)는 주문왕의 아내로, 양처(良妻)의 대표임.

117) 문무(文武) : 주나라 문왕과 무왕을 가리킴.

118) 추호(秋毫) : 가을철에 털갈이하어 새로 돋아난 짐승의 가는 털.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9) 성왕(成王) : 주나라를 세운 무왕(武王)의 아들로, 이름은 송(誦). 주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주공단(周公旦)과 소공석(召公奭)의 보좌를 받아 치세에 힘썼으므로, 그로부터 강왕(康王)시대에 걸쳐 주나라의 성시(盛時)를 실현하였다고 함.

120) 주공(周公) : 중국 주나라의 정치가. 문왕의 아들이며 무왕의 동생. 이름은 단(旦). 무왕(武王)의 도와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무왕(武王)이 죽고 조카 성왕(成王)이 등극하자, 성왕을 도와 주나라 왕실을 튼튼히 함.

121) 팔준마(八駿馬) : 중국 주나라 때에, 목왕이 사랑하던 여덟 마리의 준마. 화류(華驪), 녹이(綠耳), 적기(赤驥), 백의(白義), 유륜(踰輪), 거황(渠黃), 도려(盜驪), 산자(山子)를 이룸.

122) 요지(瑤池) : 중국 전설상의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살고 있다는 곤륜산(崑崙山)의仙境(仙境). 이곳에서 서왕모가 주나라의 목왕(穆王)을 만나 주연(酒宴)을 베풀었다고 함.

123) 쇠고(衰枯) : 점점 쇠퇴하여 바닥이 남.

124) 포사(褒姒) : 주나라 유왕(幽王)의 총희(寵姬). 유왕(幽王)이 포탕에 이르러 포인(褒人)의 죄를 문책하려하자 어떤 여자를 바치니, 유왕은 그녀의 이름을 포사(褒姒)라고 지어주고 죄를 용서하였음.

125) 조회(朝會) : 모든 벼슬아치가 함께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126) 춘추(春秋) : 춘추시대(春秋時代). 주나라가 동쪽으로 도읍을 옮긴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약 360년간의 전란시대. 공자가 『춘추』에서 이 시대의 일을 서술해서 붙여진 이름임.

127) 열국(列國) : 여러 나라. 춘추십이열국(春秋十二列國)이 있었는데 노(魯), 위(衛), 진(晉), 정(鄭), 조(曹), 채(蔡), 연(燕), 제(齊), 진(陳), 송(宋), 초(楚), 진(秦) 등을 가리킴.

128) 춘추전국(春秋戰國) : 춘추시대는 주왕조가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때로부터 한(韓)·위(魏)·조(趙) 삼씨가 진나라를 분할하여 제후로 독립할 때까지의 시대를 말하고(BC 403년), 전국시대는 그 이후부터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BC 221년까지를 가리킴.

129) 분운(紛紜) : 떠들썩하여 복잡하고 어지러움.

130) 의사충신(義士忠臣) : 의로운 지사(志士)와 충성을 다하는 신하.

131) 간사(奸邪) :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음.

- 132) 오패(五霸) : 춘추시대 5인의 패자를 일컫는 말로 오백(五伯)이라고도 함. 주로 제(齊)나라 환공(桓公), 진(晉)나라의 문공(文公), 초(楚)나라의 장왕(莊王), 오(吳)나라의 왕 합려(闔閭), 월(越)나라의 왕 구천(勾踐)을 가리킴. 진(秦)나라 목공(穆公)과 송(宋)나라 양공(襄公)을 꼽는 경우도 있음.
- 133) 환공(桓公) :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왕. 성은 강(姜), 이름은 소백(小白). 춘추오패의 한명으로 관중(管仲)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에 힘썼으며, 제후를 규합하여 맹주가 되고 패업을 완성하였음.
- 134) 누구 말 듣고 정승 삼아 : 제나라 환공이 포숙아(鮑叔牙)의 진언을 듣고 관중(管仲)을 재상으로 등용한 고사를 가리킴.
- 135) 일광천하(一匡天下) : 어지러운 천하를 다스려 바로잡음.
- 136) 관포(管鮑) : 관중과 포숙. 둘은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중원(中原)의 패자(霸者)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재상임.
- 137) 진헌공(晉獻公) :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21대 군주.
- 138) 여희(驪姬) : 진헌공(晉獻公)의 아내. 여희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헌공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하여 태자인 신생(申生)을 모함하였음. 이에 신생은 자살하였고, 또 다른 두 아들 중이(重耳)와 이오(夷吾)는 각각 포(蒲)땅과 굴(屈)땅으로 피신하였음.
- 139) 제물(祭物) : 제사에 쓰는 음식물.
- 140) 옛새를 두었던 말인가 : 여희가 신생을 신생(申生)을 모함하기 위해, 신생이 헌공에게 보낸 제물(祭物)을 6일 동안 궁중에 두었다가 헌공이 도착하자 독을 넣어 바친 고사를 가리킴. 결국 신생은 아버지가 자신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곡옥에서 목을 매어 자결했음.
- 141) 초장왕(楚莊王) : 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왕. 이름은 여(侶). 춘추 오패(五霸)의 한 사람으로, 진(晉)나라 경공(景公)의 군대를 격파하고 중원(中原)의 패자(霸者)가 되었음.
- 142) 삼년 만에 우는 새 : 불비불명(不飛不鳴)의 유래. 즉위 초 장왕(莊王)은 방탕한 생활을 하였는데, 3년째에 오거가 울지 않는 새에 관한 수수께끼를 내자, 장왕은 "그 새는 한번 울면 만인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후 간언한 신하들을 중용하여 내정을 다졌음.
- 143) 진목공(秦穆公) : 진나라 목공. 목공은 중국 춘추시대 진(秦)나라 제9대 왕. 춘추 오패의 한 사람으로, 유여(由余), 백리해(百里奚) 등의 현사(賢士)를 얻어, 선정을 베풀며 국력을 신장하고 국토를 넓혀 천 리에 달했다고 함. 재위 기간은 기원전 659~기원전 621년임.
- 144) 서융(西戎) : 예전에, 중국에서 서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서쪽 지방에 사는 민족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귀방(鬼方), 험윤(獫狁), 견융(犬戎) 등이 은나라와 주나라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 자주 침범하였음. 이후 진(秦)이 견융을 정벌하여 서서히 정복·흡수되었음.
- 145) 백리해(百里奚) : 중국 춘추시대 진(秦)나라의 명재상. 건축을 진목공에게 천거하였고 백리해와 건축은 각각 좌서장과 우서장으로 임명되었음.
- 146) 송양공(宋襄公) : 송나라 양공. 중국 춘추 시대 송나라의 왕. 이름은 자부(茲父). 초나라와 홍(泓)에서 싸울 때 상대방에게 인정을 베풀다가 오히려 패하여 죽임을 당하였음.
- 147) 제경공(齊頃公) :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의 제23대 임금으로 이름은 무야(無野)임.
- 148) 연릉계자(延陵季子) : 중국 춘추시대 오(吳)나라 왕(王) 수몽(壽夢)의 막내아들. 이름은 계찰(季札). 수몽은 그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양위하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자, 연릉에 봉하고 연릉계자라 하였음.
- 149) 백양에 걸린 칼 : 계찰계검(季札繫劍)의 유래를 가리킴. 자신의 보검을 주기로 마음먹었던 서왕



(徐王)이 먼저 죽자 그를 위해 계찰이 보검을 풀어 서왕 집의 나무에 걸어놓고 떠났다는 고사.

150) 삼연(森然) : 엄숙함. 위엄이 있고 정중함.

151) 태백(泰伯) : 주(周) 나라 태왕(太王)의 장자(長子). 태왕이 그의 아우 계력(季歷)의 아들인 문왕(文王)에게 성덕(聖德)이 있음을 알고는 왕위를 계력에게 전하려 하자, 왕위를 아우 계력에게 양보하고서 형월(荊越)지방으로 피하여 은둔하였음.

152) 흉험(凶險) : 마음이 흉악하고 음험함.

153) 초평왕(楚平王) :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왕. 아들인 태자(太子) 건(建)의 비로 간택된 진나라의 공녀가 대단한 미인이자 평왕은 그녀를 후궁으로 삼고, 태자 건에게는 다른 여자를 태자비로 주었음. 뒤에 간신 비무기의 모함을 받고 태자 건도 죽이려고 하였으나, 건은 송나라로 망명하였음.

154) 오자서(伍子胥) : 중국 춘추 시대의 초나라 사람(?~기원전 484). 이름은 원(員).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평왕(平王)에게 피살되자 오(吳)나라로 가 합려(闔閭)를 보좌하여 오나라를 강국으로 키웠고 결국 초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았음.

155) 채찍소리 : ‘굴묘편시(掘墓鞭屍)’의 유래. 기원전 506년 오나라가 초나라를 함락시킨 뒤, 오자서가 평왕의 묘를 찾아 시신을 파낸 뒤 채찍질을 300번 함으로써 복수한 고사를 가리킴.

156) 동문에 걸린 눈 : 오(吳)나라 합려가 죽은 뒤 아들 부차가 왕위에 올랐는데, 부차는 간신 백비(伯嚭)의 모함을 듣고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하였고, 이에 오자서는 자신이 죽으면 오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눈알을 도려내서 동문(東門) 위에 걸어달라고 당부하고는 자결하였음.

157) 저라산(苧羅山) : 중국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미녀인 서시(西施)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곳.

158) 완사(浣紗) : 마전이나 빨래를 함.

159) 고소대(姑蘇臺) : 중국 춘추시대에 오나라의 왕인 부차(夫差)가 고소산(姑蘇山) 위에 쌓은 대. 부차는 월나라를 무찌르고 얻은 미인 서시(西施) 등 천여 명의 미녀를 이곳에 살게 하였다고 함.

160) 도주공(陶朱公) : 중국 춘추시대 정치가 ‘범려(范蠡)’를 가리킴. 범려는 월나라 왕 구천을 섬겨 오나라를 멸망시킨 공신이었는데 대업이 달성된 뒤에는 월나라를 떠나 도현(陶縣)으로 가서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칭하고, 장사로 다시 거만(巨萬)의 재산을 모았다고 전해짐.

161) 공자(孔子) :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 학자(B.C.551~B.C.479).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노나라 사람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인(仁)을 정치와 윤리의 이상으로 하는 덕치(德治)를 강조하였음. 만년에는 교육에 전념하여 3,000여 명의 제자를 길러 냄.

162) 거백옥(蘧伯玉) : 위(衛)나라의 재상으로 이름은 원(瑗). 공자는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서 “군자로다. 거백옥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숨길 수 있다(君子哉 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라고 하면서 그의 덕을 칭송하였음.

163) 수레 소리 궁문에 그쳤구나 : 거백옥(蘧伯玉)이 자기가 모시던 영공이 사는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반드시 수레를 세워 절을 하고 지나간 일을 가리킴.

164) 행장(行裝) :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165) 탁신(託身) : 남에게 몸을 의탁함.

166) 천추(千秋) : 오래고 긴 세월. 또는 먼 미래.

167) 백아(伯牙) : 중국 춘추 시대의 거문고의 명인. 그의 거문고 소리를 즐겨 들던 친구 종자기(鍾子期)가 죽자 자기의 거문고 소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슬퍼한 나머지 거문고의 줄을 끊고 일생 동안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하는 ‘백아절현(伯牙絕絃)’ 고사가 유명함.

- 168) 종자기(鍾子期) :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 사람. 당시 거문고의 명인이었던 백아(伯牙)의 친구로서,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잘 알아들었다고 함.
- 169) 금란(金蘭) : 쇠보다 견고하고, 난초보다 향기롭다는 뜻으로, 매우 친밀한 사귀이나 두터운 우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70) 황앵(黃鶯) : 꾀꼬리.
- 171) 모해(謀害) : 꾀를 써서 남을 해침.
- 172) 강상(綱常) :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룸.
- 173) 대변(大變) : 중대하고 큰 변고.
- 174) 분운(紛紜) : 떠들썩하고 어지러움.
- 175) 노담(老聃) : 노자(老子).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성은 이(李).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백양(伯陽). 도가(道家)의 시조로서, 상식적인 인의와 도덕에 구애되지 않고 만물의 근원인 도를 좇아서 살 것을 역설하고, 무위자연을 존중하였음.
- 176) 열자(列子) :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 이름은 어구(禦寇). 중국 도가(道家)의 기본 사상을 확립한 3명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도가 경전인 『열자』의 저자로 전하여짐.
- 177) 구주(九州) : 중국 고대에 전국을 나눈 9개의 주.
- 178) 니구산(尼丘山) : 노나라 양공 이십년에 안징재(顏徵在)가 니구산에서 기도를 올려 그 다음해에 공자를 낳았다고 함. 공자가 태어나자 그 머리의 한가운데가 움푹 패이고 주위가 높은 것이 마치 니구산의 모양과 비슷하였으므로 이름을 구(丘), 자는 중니(仲尼)라고 지었음.
- 179) 철환(轍環) : 수레를 타고 돌아다님.
- 180) 행단(杏壇) : 옛날 공자(孔子)가 사수(泗洙)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던 유지(遺址).
- 181) 협곡(峽谷)에 큰 위험으로 : 노(魯)나라 정공(定公)이 제(齊)나라 경공(景公)과 협곡(夾谷)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만일에 대비해서 필요한 전투준비를 갖추고 가야만 된다는 것을 공자(孔子)가 강조하였는데, 그 결과 제나라의 음모에 대응할 수 있었음.
- 182) 정묘(正卯) : 소정묘(少正卯). 춘추 시대 노(魯)나라 대부(大夫). 소정묘가 천하의 5대악(大惡)으로 나라 정치를 어지럽히므로 공자가 섭정(攝政)할 당시 주살(誅殺)했음.
- 183) 시서(詩書) : 공자가 지은 『시경』과 『서경』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84) 계사(繫辭) : 괘사(卦辭)와 효사(爻辭)를 통틀어 이르는 말. 본문에서는 『주역』을 가리킴. 『주역』은 8괘(八卦)와, 그것을 결합한 64괘, 그리고 각 괘의 길흉을 서술한 괘사(卦辭), 각 괘를 이루는 여섯 개의 효를 설명한 효사(爻辭)가 중심이 되어 있음.
- 185) 춘추(春秋) : 유교 오경(五經)의 하나. 공자가 노나라 은공(隱公)에서 애공(哀公)에 이르는 242년(B.C.722~B.C.481) 동안의 사적(事跡)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임.
- 186) 현원씨(軒轅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곡물 재배를 가르치고 문자·음악·도량형 따위를 정하였다고 함.
- 187) 점복(占卜) : 점치는 일. 또는 점술과 복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88) 칠십 제자 : 공자의 삼천 명 제자 중에 특히 육예(六藝)
- 189) 자공(子貢) : 중국 춘추시대 위나라의 유학자. 성은 단목(端木), 이름은 사(賜).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 사람으로 언어에 뛰어났으며,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宰相)을 지냈음.
- 190) 부운(浮雲) : 뜬구름처럼 덧없음.

- 191) 민자건(閔子騫) :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손(損), 자건은 자(字)임. 계모 밑에서 자랐으나 효자로 이름이 높았음.
- 192) 원헌(原憲) : 공자의 제자. 옷을 해 입지 못하고, 잘 먹지 못했으나 『시경』을 암송하면 그 소리가 마치 악기 같았다고 함.
- 193) 민멸(泯滅) : 자취나 흔적이 아주 없어짐.
- 194) 안자(顔子) : 안회(顔回)를 높여 부르는 말. 안회는 중국 춘추시대의 유학자(B.C.521~B.C.490). 자는 연(淵). 공자의 수제자로 학덕이 뛰어났음.
- 195) 도통(道統) : 도학(道學)을 전하는 계통.
- 196) 증삼(曾參) : 중국 노나라의 유학자(B.C. 506~?B.C.436). 자는 자여(子輿). 공자의 덕행과 사상을 조술(祖述)하여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에게 전하였음. 후세 사람이 높여 증자(曾子)라고 일컬었으며, 저서에 『증자』, 『효경』 등이 있음.
- 197) 오열(嗚咽) : 목메어 울. 또는 그런 울음.
- 198) 애원(哀怨) : 슬프게 원망함.
- 199) 풍진(風塵) :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
- 200) 삼진(三晉) : 중국 춘추 시대 말기에 진(晉)나라를 받든 세 재상인 위사(魏斯), 조적(趙籍), 한건(韓虔)이 각각 세운 위(魏)나라, 조(趙)나라, 한(韓)나라를 이르는 말.
- 201) 찬위(篡位) : 임금의 자리를 빼앗음.
- 202) 전국(戰國) : 전국시대는 한(韓)·위(魏)·조(趙) 삼씨가 진나라를 분할하여 제후로 독립한 이후부터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BC 221년까지를 가리킴.
- 203) 춘추(春秋) : 춘추시대(春秋時代). 주나라가 동쪽으로 도읍을 옮긴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약 360년간의 전란시대. 공자가 『춘추』에서 이 시대의 일을 서술해서 붙여진 이름임.
- 204) 칠국(七國) : 중국 전국시대에 활거하던 일곱 강국. 진(秦), 초(楚), 연(燕), 제(齊), 조(趙), 위(魏), 한(韓)을 이룸. 전국칠웅(戰國七雄)이라고도 함.
- 205) 상양(商鞅) : B.C. 362년 효공(孝公)이 진(秦)나라 왕위에 오르자 위(衛)나라 출신인 상양(商鞅)을 등용해 내정을 개혁하였는데, 상양은 혈연 존중의 인사를 고쳐서 공적에 따른 신분제도를 설정하고, 군사조직과 토지제도를 혁신하여 조세(租稅)를 공정하게 했으며, 병농(兵農)을 일치시켰음.
- 206) 초나라 소가 황금을 뚱으로 누네 :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유래. 중국 전국시대 진(秦)나라 혜왕(惠王)은 대리석으로 소를 조각한 뒤 그 속에 황금과 비단을 채워 넣고, 욕심 많은 촉후(蜀侯)에게 황금뚱을 누는 소를 바치겠다고 속여 길을 연 뒤 촉나라를 정벌하였음.
- 207) 육국(六國) : 진(秦)나라를 제외한 전국시대 여섯 나라. 즉 초(楚), 연(燕), 제(齊), 조(趙), 위(魏), 한(韓)을 이룸.
- 208) 소진(蘇秦) : 중국 전국 시대(全國時代)의 책사(策士). 합종설(合從說)을 주장하여 한(韓).위(魏).조(趙).연(燕).초(楚).제(齊)의 육국(六國)을 합종(合從)하여 진(秦)나라에 대항케 하여 스스로 육국의 재상이 되었음.
- 209) 귀곡자(鬼谷子) :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의 사상가. 영천(潁川)·양성(陽城)의 귀곡지방에 은둔하였기 때문에 귀곡자라고 함. 7국이 패권을 다투던 시대에, 권모술수의 외교책을 우자(優者)의 도(道)라고 주장한 종횡가(縱橫家)였음.
- 210) 사공자(四公子) :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활약했던 제(齊)의 맹상군(孟嘗君), 조(趙)의 평원군(平原

君), 위(魏)의 신릉군(信陵君), 초(楚)의 춘신군(春申君) 등 4명의 인물을 일컫는 말.

211) 식객(食客) : 예전에, 세력 있는 대갓집에 얹혀 있으면서 문객 노릇을 하던 사람.

212) 함곡관(函谷關) : 중국 허난성(河南省) 북서부에 있어 동쪽의 중원(中原)으로부터 서쪽의 관중(關中)

213) 야간에 우는 닭 : 계명구도(鷄鳴狗盜)의 유래. 중국 전국시대 齊(제)나라 孟嘗君(맹상군)이 진(秦)나라 소왕(昭王)에게 잡혔었는데, 닭의 울음소리를 낼 줄 아는 식객을 시켜 새벽인 것처럼 꾸며 울게 하니 관문이 열려 함곡관을 빠져나왔다는 고사.

214) 평원군(平原君) :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의 공자(?~?B.C.251). 본명은 조승(趙勝). 무령왕의 아들로, 삼천 명의 식객을 부양하였으며, 전국(戰國)말기 사군(四君)의 한 사람으로 불림.

215) 녹록(碌碌) : 평범하고 보잘것없음. 만만하고 상대하기 쉬움.

216) 춘신군(春申君) :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정치가(?~B.C.238). 본명은 황혈(黃歇). 춘신군은 봉호(封號). 고열왕(考烈王) 재위 시기에 재상(宰相)으로 활약했으며,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 강국인 진(秦)의 진출을 저지하여옴.

217) 후방에 감춘 계집 어이하여 드렸던고 : 고열왕(考烈王)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춘신군이 임신한 이원(李園)의 누이동생을 고열왕에게 바쳐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짐. 뒤에 비밀이 밝혀질 것을 염려한 이원은 고열왕이 병으로 죽자 춘신군과 일족을 모두 살해하였음.

218) 천륜(天倫) :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

219) 초회왕(楚懷王) : 초나라 회왕(?~B.C.296). 전국시대 초(楚)나라는 한때 세력이 강성했지만, 회왕(懷王)이 장의(張儀)의 변설(辯舌)에 속아 국력을 소진하면서 급격히 쇠락하였음. 회왕(懷王)은 진(秦) 소양왕(昭襄王)과 회담하기 위해 무관(武關)으로 갔으나, 3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죽었음.

220) 병갑(兵甲) : 병기(兵器)와 갑옷투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무장한 병사.

221) 굴원(屈原) :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초(楚)나라의 우국지사(憂國之士)·시인(詩人). 이름은 평(平). 회왕(懷王)을 도와서 공이 컸으나, 참소(讒訴)를 당하고 한 때 방랑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울분을 참지 못하여 <회사부(懷沙賦)>를 읊고 먹라수(汨羅水)에 빠져 죽음.

222) 창낭(滄浪) : 넓고 큰 바다의 맑고 푸른 물결.

223) 이소(離騷) : 중국 초나라의 굴원이 지은 부(賦). 조정에서 쫓겨난 후의 시름을 노래한 것으로 『초사』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꼽힘.

224) 영장(永葬) : 편안하게 장사지냄. 안장(安葬)과 같은 말.

225) 송옥(宋玉) : 중국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의 궁정시인. 굴원(屈原)에게 사사하여 초나라의 대부(大夫)가 되었으나, 뒤에 실직하였음. 굴원에 다음가는 부(賦)의 작가로, 두 시인을 '굴송(屈宋)'이라 병칭(並稱)하기도 함.

226) 양춘백설곡(陽春白雪曲) : 중국 楚(초)나라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하던 가곡. 훌륭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움을 비유함. 송옥(宋玉)의 <대왕초문(對楚王問)>에 내용.

227) 양대(陽臺) : 전국시대 초(楚)나라 양왕(襄王)이 송옥과 고당관에 이르렀는데 하늘에 이상한 형상의 구름이 송옥에게 물으니, 운우지정(雲雨之情)의 고사를 들려 줌. 여기서 양대란 해가 잘 비치는 대라는 뜻인 동시에 은밀히 나누는 사랑을 의미함.

228) 저녁 비와 아침 구름 : 무산지몽(巫山之夢), 운우지정(雲雨之情) 고사를 가리킴.

229) 칠십여경(七十餘更) : 경(更)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누어 부르는 시간의 이

름. 밤 7시부터 시작하여 두 시간씩 나누어 각각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이라고 이름.

230) 호음(號音) : 신호로 내는 소리.

231) 이문(里門) : 중국 주(周)나라 때 행정구역으로 스물다섯 집을 리(里)라 하였는데, 이문(里門)은 리마다 세운 문을 가리킴. 려(閭)라고도 함.

232) 이문(里門)에 서있는 어머니' : 의문의려(倚門倚閭)의 유래. 중국 전국시대 때 왕손가(王孫賈)는 15세에 제(齊)나라 민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었는데, 왕손가의 어머니는 그가 입조(入朝)하여 집에 늦게 돌아올 때면 문 앞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곤 하였다고 함.

233) 요치 : 중국 전국시대 때 제(齊)나라 민왕을 급습하여 죽인 연(燕)나라의 장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왕손가에 의해 주살되었음.

234) 뇌정(雷霆) : 천둥과 벼락이 격렬하게 침.

235) 진첩(震疊) : (존귀한 사람이) 몹시 성을 내어 그치지 아니함.

236) 뒷간에 버린 송장 : 중국 전국시대 정치가 범수(范雎)를 가리킴.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는데 제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오해를 받아 재상 위제(魏齊)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했음. 심한 고문을 당한 범수가 죽은 척을 하자 위제는 그를 변소에 버리고 술에 취한 빈객들에게 소변을 보게 하였음. 살아난 범수는 진나라로 가고 소양왕의 신임을 얻어 훗날 복수함.

237) 유유(悠悠) : 움직임이 한가하고 여유가 있고 느낌.

238) 백기(白起) :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나라의 명장(名將). 백기가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토벌해 명성이 높아지자, 당시 소양왕의 신임을 얻고 있던 범수(范雎)가 그를 두려워하여 중상모략 해서 왕으로 하여금 백기를 죽이게 했음.

239) 채택 :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재상. 원래 연나라 사람이었으나 진나라로 가서 재상이 되었음. 채택은 공을 세운 후에는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도라고 범수를 설득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한 후 재상이 되었음. 후에 그도 스스로 물러나 평안한 말년을 보냈음.

240) 오기(吳起) :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병법가(?B.C.440~B.C.381). 증자(曾子)에게 배우고 노(魯)나라, 위(魏)나라에서 벼슬한 뒤에 초(楚)나라에 가서 도왕(悼王)의 재상이 되어 법치적 개혁을 추진하였음. 저서에 병법서 『오자(吳子)』가 있음.

241) 살처(殺妻) : 제(齊)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하였을 때 오기(吳起)는 제나라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었는데 의심을 받는다고 아내를 죽여 노나라에 대한 충성을 나타낸 뒤, 노나라 장군으로서 제나라 군대를 격파하였음.

242) 악양(樂羊) :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 문후(文侯) 때의 장수. 그가 중산(中山)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아들 악서가 그곳에서 장군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위의 비방이 많았으나 위 문후(魏文侯)의 믿음을 받고 진군하여 마침내 함락시킴.

243) 식자(食子) : 아들을 먹음. 악양(樂羊)이 중산(中山)을 정벌할 때, 중산의 왕이 악양의 아들 악서를 죽인 뒤 고깃국을 만들어 악양에게 보냈으나, 악양이 그것을 태연히 마시고 중산을 정복한 고사를 가리킴.

244) 증삼(曾參) : 중국 노나라의 유학자(B.C.506~?B.C.436). 자는 자여(子輿). 공자의 덕행과 사상을 조술(祖述)하여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에게 전함. 후세 사람이 높여 증자(曾子)라고 일컬었으며, 저서에 『증자』, 『효경』이 있음.

245) 증삼(曾參)이 살인할까 : 증삼살인(曾參殺人)의 고사를 가리킴.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가 많으면 진실이 됨을 비유한 말.

246) 북 : 베를 짜면서 실을 담아 좌우로 옮겨주는 도구를 일컫음.

247) 자약(自若) : 큰일을 당해서도 놀라지 아니하고 보통 때처럼 침착함.

248) 두세 번 반복할 때는 던지는 줄 : 증자(曾子)가 비(費)라는 곳에 살 때 하루는 그와 이름이 같은 살인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증자 어머니에게 달려와 아들이 살인하였다고 잘못 전하자, 그의 어머니가 한 두 번 들을 때는 아들을 믿고 태연히 짜던 베를 계속 짰으나, 세 번째에는 베를 짜던 북을 던지고 달려 나간 일을 가리킴.

249) 맹모(孟母) : 맹자의 어머니.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하였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가 유명함.

250) 조회(照會) : 어떠한 사항이나 내용이 맞는지 관계되는 기관 등에 알아보는 일.

251) 당우(唐虞) : 중국 고대의 임금인 도당씨(陶唐氏) 요(堯)와 유우씨(有虞氏) 순(舜)을 아울러 이르는 말. 중국 역사에서 이상적인 태평 시대로 꼽힘.

252) 한단(邯鄲)의 큰 장사 : 중국 전국시대 거상(巨商) 여불위(呂不韋)를 가리킴. 여불위는 조(趙)나라에 볼모로 잡혀있던 진나라의 공자 자초(子楚)를 몰심양면으로 도왔음. 그 후 자초가 귀국하여 진나라의 왕위에 오르자 여불위는 진나라의 승상이 되고 권세를 누렸음.

253) 기화(奇貨) : 조나라에 볼모로 잡혀있던 자초(子楚)를 여불위가 처음 보고 한 말로 진기한 물건이나 사람은 당장 쓸 곳이 없다 하여도 훗날을 위하여 잘 간직하는 것이 옳다는 뜻임.

254) 화양(華陽) : 화양부인. 진소왕의 태자 안국군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으나 아들이 없었는데, 여불위가 화양을 설득하여 자초(子楚)를 양자로 삼게 하였고, 이에 자초가 진나라 왕위에 올랐음.

255) 자식 댄 고운 첩 태자를 숙여서 준다 : 여불위는 조회(趙姬)라는 애첩을 자초에게 바쳐 아내로 삼게 하였는데, 일설에 따르면 이미 조회는 여불위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다고 함. 이 조회의 아들이 훗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秦始皇)이 됨.

256) 육국(六國) : 전국시대의 한·위·조·초·연·제나라 등 6국. 진시황은 기원전 221년 여섯 나라를 물리치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으며, 스스로 황제칭호를 사용하였음.

257) 만리장성(萬里長城) : 중국의 북쪽에 있는 성. 춘추전국시대의 조(趙)나라, 연(燕)나라 등이 변경의 방위를 위하여 축조한 것을 진(秦)의 시황제가 크게 증축하여 완성하였음.

258) 아방궁(阿房宮) : 중국 진(秦)나라 시황제가 기원전 212년에 세운 궁전. 유적은 산시 성(陝西省) 시안(西安) 서쪽에 있음.

259) 만권서(萬卷書) 타는 냄새 :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가리킴. 시황제가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하여 민간의 책 가운데 의학(醫藥), 복서(卜筮), 농업에 관한 것만을 제외하고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생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

260) 불사약(不死藥) : 진시황 28년에 제인(齊人), 서시(徐市) 등은 황제의 명령으로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봉래, 방장, 영주, 삼신산 등지를 돌아다녔으나 그들은 불사약을 구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였다고 함. 불로초(不老草)라고도 함.

261) 박랑사(博浪沙) : 중국 허난 성(河南省) 우양현(武陽縣)의 고적. 진(秦)나라 무양 성의 남쪽에 있는데, 장량(張良)이 역사(力士)들로 하여금 첩퇴로 진나라 시황제를 저격하게 한 곳으로 유명함.

262) 부거(副車) : 임금이 순행할 때 여벌로 따라가던 수레. 장량의 박랑사 습격은 진시황이 탄 마차가 아니라 부거를 침으로써 실패함.

- 263) 사구(沙丘) :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다섯 번째로 천하를 순행하는 길에 나섰다가 사구(沙丘)에서 병을 얻어 죽었음.
- 264) 궁중에 날랜 사슴 말이 되어 :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유래.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고(趙高)는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호해(胡亥)를 2세 황제로 만들어 실권을 장악했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호해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바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그의 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함.
- 265) 함양(咸陽) : 중국 산시성의 중부에 있는 도시. 전국시대 말기(B.C.350)에 진(秦)의 효공(孝公)이 천도하여 B.C.207년 멸망 때까지 진나라의 수도였음. 항우(項羽)가 진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불에 탔는데 불길의 3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함.
- 266) 동강을 치니 : 동강이 나게 자르니.
- 267) 야반(夜半) : 밤이 깊은 때.
- 268) 황석공(黃石公) : 중국 진(秦) 나라 말의 은사(隱士). 병법가. 장량(張良)에게 병서(兵書)를 전해 주었다는 노인으로서, 장량은 이 병서를 읽고서 한나라 고조 유방(劉邦)의 천하 통일을 도왔다고 함.
- 269) 홍문연(鴻門宴) : 중국 진(秦末)나라 말기,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암투하던 차에 홍문(鴻門)에서 연례를 갖게 되었는데, 이 때 항우의 조카 항장(項莊)은 검무(劍舞)를 추다가 유방을 죽이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음. 항장무는 홍문연의 이야기를 무극화한 것임.
- 270) 초패왕(楚霸王) : 항우(項羽, B.C.232~B.C.202). 중국 진(秦)나라 말기에 유방(劉邦)과 천하를 놓고 다툰 무장.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봉기하여 진군을 도처에서 무찌르고 관중으로 들어가 진을 멸망시킨 뒤 서초 패왕이라 칭했으나 이후, 해하(垓下)에서 유방에게 포위되어 자살했음.
- 271) 칠십옹(七十翁) : 초나라의 책사이자 정치가인 범증(范增)을 가리킴. 유방(劉邦)의 모사 진평(陳平)의 계략에 빠진 항우는 범증을 쫓아내는데, 이후 범증은 천하를 떠돌다가 악성 등창이 생겨 실의 속에 죽었다고 함. 항우는 전쟁에서 패배한 뒤 범증을 쫓아낸 일을 뒤늦게 후회함.
- 272) 진평(陳平) : 중국 한나라의 정치가(?~B.C.178). 한고조 유방(劉邦)을 도와 천하 통일을 이루었으며, 여씨의 난을 평정하였음.
- 273) 해하(垓下) : 항우(項羽)가 한나라 고조 유방(劉邦)에게 포위되어 자살한 곳.
- 274) 사면초가(四面楚歌)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초나라 항우가 사면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랐다는 데서 유래함.
- 275) 우미인(虞美人) : 중국 진(秦)나라의 무장 항우(項羽)의 총희(寵姬). 항우가 유방에게 포위되어 '사면초가'의 막다른 상황에 다다른 자, 최후의 주연을 베풀고 자진(自盡)했다고 함.
- 276) 애원(哀怨) : 슬프게 원망함.
- 277) 오강(烏江) :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쓰촨성[四川省]을 흐르는 강. 항우는 오강(烏江)에 다다라 한나라 유방의 군사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 마지막에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함.
- 278) 천리마 :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는 좋은 말. 본문에서는 항우의 애마인 '오추마(烏騅馬)'를 가리킴. 항우가 죽자 배에 올라 이끌려가던 오추마도 오강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함.
- 279) 한(漢) : 진(秦)에 이어지는 중국의 통일왕조(B.C.202~A.D.220). 장안(長安)을 수도로 하였던 한을 전한(前漢)
- 280) 헌수(獻酬) : 술잔을 올림.

281) 포려한 :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강포하다’의 옛말인 ‘포려하다’의 관형형.

282) 피란(避亂) : 난리를 피하여 옮겨 감.

283) 적송자(赤松子) : 선농(禪農) 때 우사(雨師)로서, 뒤에 곤륜산(崑崙山)에 들어가서 선인(仙人)이 되었다고 함.

284) 상산(商山)의 네 늙은이 : 상산사호(商山四皓)를 가리킴. 한(漢) 고조(高祖) 때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섬서성(陝西省) 상산(商山)에 들어가 숨은 네 사람의 은사(隱士). 곧 동원공(東園公)·기리계(綺里季)·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角里先生)을 말함.

285) 척부인(戚夫人) : 진(秦) 말기부터 전한 초기 사람으로 초나라 춤을 잘 추었기에 유방(한고조)을 만나 그의 측실이 되었다고 함. 유여의(劉如意)의 생모로 자신의 아들 여의(如意)를 태자로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함.

286) 인체(人彘) : 사람돼지. 한고조가 죽은 뒤 태자 유영(劉盈)이 왕위에 오르자(전한 혜제) 여태후(呂太后)는 척부인에게 보복하였는데, 여의는 짐주로 독살하고 척부인은 병어리, 귀머거리, 장님으로 만든 뒤 수족을 모두 끊어 변소에 던져 인체(人彘)로 칭했다고 함.

287) 여가(呂家)를 주려함 : 한고조가 죽고 유영(혜제)이 즉위한 뒤, 정권은 여태후(呂太后)가 장악했는데, 그녀는 유방의 서자들을 살해한 뒤 여씨 일족을 제후로 봉하고, 종직에 기용하였음.

288) 무제(武帝) : 중국 전한(前漢)의 제7대 황제((B.C.156~B.C.87). 제후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하였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음.

289) 허비하니 : 한무제(漢武帝)가 재정을 궁핍하게 한 것을 가리킴. 무제는 군사비에 막대한 돈을 썼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궁전과 이궁을 짓고, 불로장생을 믿어 방사(方士)를 모아 태산(泰山)에서 봉선(封禪) 의식을 하여 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하였음.

290) 신황 : 진시황을 가리킴.

291) 소옹(少翁) : 중국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방사(方士). 무제가 사랑하던 왕부인을 잃고 상심할 때, 소옹이 방술로 왕부인의 모습을 불러내어 휘장 안에서 만나게 해 주자, 이로 인하여 무제는 소옹을 문성장군(文成將軍)이라 칭하고는 많은 상을 내렸음.

292) 흉노(匈奴) : 중국의 이민족인 오호(五胡) 중 하나. 진(秦)나라·한(漢)나라 때에 몽골 고원에서 활약하던 기마 민족. 한나라 무제의 잦은 침공으로 쇠약해져, 1세기경 남북으로 분열되었음.

293) 건장궁(建章宮) : 중국의 한(漢) 무제(武帝)가 지은 궁전 이름. 장안현(長安縣)에 있는데 천문만호(千門萬戶)가 될 정도로 규모를 크게 지었다고 함.

294) 승로반(承露盤) : 하늘에서 내리는 장생불사의 감로수를 받아먹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쟁반. 한무제는 건장궁(建章宮)에 높은 구리기둥(銅柱)으로 된 승로반을 만들고, 그 위에 이를 두어서 감로를 받았다고 전해짐.

295) 백두음(白頭吟) : 한나라 시대의 민간가요. 상화가초조곡(相和歌楚調曲)에 속함.

296) 광광(霍光) : 한나라의 명신(名臣). 금일제(金日磾)와 함께 무제(武帝)의 유지를 받들어 소제(昭帝)를 보필하였음. 이 시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넉넉하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복속하였다고 함.

297) 반도(蟠桃) : 삼천 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린다는 선경에 있는 복숭아.

298) 상림원(上林苑) : 중국 진(秦)·한(漢) 대의천자(임금)의 동산 이름. 원(苑)이란 주위에 담을 두르고 그 안에 새나 짐승 등을 기르는 곳을 말함. 상림원은 진대에도 있었으나 황폐하였기 때문에 무제(武帝)가 이를 수복하여 확장시켰음.



- 299) 상림원(上林苑) 기러기가 편지를 전한다 : 중국 전한(前漢)의 충신 소무(蘇武)에 얽힌 고사. 소무는 무제(武帝) 때 흉노(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곳에 억류되었는데, 그의 서신을 발목에 맨 기러기가 상림원에서 화살에 맞아서 떨어져 소식이 알려졌고, 이에 19년 만에 귀국할 수 있었음.
- 300) 마천(馬遷) :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 자는 자장(子長).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였음.
- 301) 상여(相如) : 사마상여(司馬相如). 중국 전한(前漢)의 문인. 자는 장경(長卿). 그의 사부(辭賦)는 한(漢)·위(魏)·육조(六朝) 문인의 모범이 되었음. 작품에 〈자허지부(子虛之賦)〉가 있음.
- 302) 사부(辭賦) : 초사(楚辭)의 형식에 의거한 산문에 가까운 운문(韻文). 한(漢)나라 때 발전하였는데, 『한서(漢書)』에는 “사에는 「이소」보다 깊은 게 없고, 부에는 「상여(相如)」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라고 기록하였음.
- 303) 문군(文君) :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아내인 탁문군(卓文君). 일설에 의하면 상여가 첩을 얻으려고 하자 탁문군이 <백두음(白頭吟)을 지어 결별의 뜻을 밝혀, 상여가 첩 얻는 것을 단념하였다고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백두음>은 탁문군과는 무관한 한대(漢代)의 민가(民歌)로 봄.
- 304) 음특(淫慝) : 성질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간악함.
- 305) 주유왕(周幽王) : 주(周)나라 제12대 왕. 향락과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견융의 침공리산 기슭에서 살해되었음. 애첩이었던 포사(褒姒)를 웃기려고 거짓 봉화를 올린 것으로 유명함.
- 306) 추풍(秋風)의 단선(團扇) : 추풍선(秋風扇). 가을철의 부채라는 뜻으로, 철이 지나서 쓸모없이 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07) 전권(專權) : 혼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름. 또는 그 권력.
- 308) 효원황후(孝元皇后) : 중국 전한의 제11대 황제 원제의 황후였던 왕정군(王政君).
- 309) 왕망(王莽) : 중국 전한(前漢) 말의 정치가이며 ‘신(新)’왕조(8~23)의 건국자. 효원황후의 조카로 갖은 권모술수를 써서 전한의 황제권력을 찬탈한 뒤 신(新)나라를 건국하였으나 15년에 멸망하였음. 이후 한 왕조의 혈통을 이은 유수(광무제)에 의해 후한이 건국됨.
- 310) 백수진인(白水真人) : 돈(錢)의 별칭. 왕망(王莽) 때 돈을 화천(泉)이라고 하였는데, 천(泉)을 파자(破子)하면 백수가 되고 화(貨)를 파자하면 진인 비슷하게 되므로 이것을 가리킴.
- 311) 남양(南陽) :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태어난 곳.
- 312) 장구(長久)히 : 매우 길고 오래도록.
- 313) 조강(糟糠) : 지게미와 쌀겨라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변변치 못한 음식을 이르는 말. 조강지처(糟糠之妻)는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를 이르는 말.
- 314) 송홍(宋弘) : 후한 광무제(光武帝)는 과부가 된 누님을 송홍에게 시집보내고 싶어 그의 의향을 물어보았으나 송홍이 조강지처를 언급하며 사양하였음.
- 315) 음려화(陰麗華)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왕비인 음후(陰后). 광무제는 곽후를 폐하고 음후를 세웠음.
- 316) 곽후(郭后)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왕비인 성통(聖通)을 말함. 외척이 권력을 농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곽후를 폐하였음.
- 317) 한명제(漢明帝) : 중국 후한(後漢)의 황제 유장(劉莊, 28~75). 재위 기간 중에 불교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흉노족을 평정하여 북방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재확립하였음.

- 318) 허탄(虛誕) :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함.
- 319) 마천(馬遷) :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 자는 자장(子長).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였음.
- 320) 도제가(道諸家) : 도가(道家). 중국 선진(先秦) 시대 제자백가의 하나. 노자와 장자의 허무, 염담(恬淡), 무위(無爲)의 설을 받든 학파로,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을 숭배하였음.
- 321) 양홍(楊弘) : 후한 말기 남양 태수 원술(袁術)의 막료로 『삼국지연의』에서는 양대장(陽大將)으로 등장함. 199년, 원술(袁術)이 죽자 장훈(張勳) 등과 함께 손책(孫策)에 의지하다가 그 도상에서 원술의 잔당인 여강태수(廬江太守) 유훈(劉勳)에게 매복 당해 포로가 되었음.
- 322) 낙양성(洛陽城) : 중국 허난 성(河南省) 서북부에 있는 성. 예로부터 여러 왕조의 도읍지로 번창하여 명승고적이 많음.
- 323) 환관(宦官) : 거세(去勢)된 남자로서 궁중에서 벼슬을 하거나 유력자 밑에서 사역되던 자.
- 324) 손정(孫靜) : 중국 후한 말의 인물로, 자는 유대(幼臺). 삼국시대 오나라의 시조인 손견의 동생으로 형을 도와 후방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음. 손견이 사망하고 조카인 손책이 주군으로 등극하자 회계군 공략의 선봉장으로 역할하였음.
- 325) 십상시(十常侍) : 중국 한(漢)나라 영제(靈帝) 때에 환관(宦官)인 장양(張讓). 조충(趙忠). 하운(夏惲). 곽승(郭勝). 손장(孫璋). 필남(畢嵐). 율송(栗嵩). 단규(段珪). 고망(高望). 장공(張恭). 한리(韓悝) 등의 열명을 가리킴.
- 326) 동탁(董卓) : 중국 후한(後漢) 말기의 무장(武將). 낙양에 입성하여 헌제를 옹립하고 정권을 잡았음. 이에 동탁 토벌군이 조직되자 낙양성을 소각하고 장안으로 천도했으나 횡포가 심했고, 그 때문에 사도 왕윤의 모략에 걸려 여포에게 살해되었음.
- 327) 배꼽에 높은 등잔불이 백일 동안 밝았으니 : 동탁은 사망한 후 참수되어 머리와 몸통이 따로 분리된 채 장안성에 효수되었는데, 한 병사가 동탁의 배꼽에 불을 놓자 며칠씩이나 계속 탔다고 함.
- 328) 적신(賊臣) : 반역하거나 불충한 신하.
- 329) 조조(曹操) :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조(始祖)(155~220). 자는 맹덕(孟德). 황건의 난을 평정하여 공을 세우고 동탁(董卓)을 벤 후 실권을 장악하였음. 208년에 적벽(赤壁) 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여 중국이 삼분된 후 216년에 위왕(魏王)이 되었음.
- 330) 아들 : 조조(曹操)의 아들 조비(曹丕)는 헌제에게 양위를 받아 위나라 황제가 된 뒤, 아버지 조조를 태조 무황제(太祖 武皇帝)로 추존하였음.
- 331) 오장원(五丈原) : 중국 삼국시대의 유명한 싸움터. 234년 촉한(蜀漢)의 제갈량(諸葛亮)
- 332) 동오 : 오(吳)나라. 삼국시대 222년에 손권이 건업(建業)에 도읍하고 강남에 세운 나라. 280년 서진(西晉)에게 멸망하였음. 위촉오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건국되었으나, 가장 오랫동안 존속하였고 가장 나중에 멸망하였음.
- 333) 장판교(長坂橋) : 조조(曹操)가 형주(荊州)를 공격해 오자 장비(張飛)가 당양 장판교(長坂橋) 위에서 기병 20기를 데리고 “내가 장익덕이다”라고 일갈하여 추격해 오는 조조군을 물리친 일화가 유명함.
- 334) 적벽전(赤壁戰) : 중국 삼국시대인 208년에 적벽에서 조조(曹操)가 손권(孫權).유비(劉備)의 연합군과 싸웠던 전투임. 이 전투에서 조조군은 크게 패배하고 후퇴하였는데, 이 결과 손권의 강남 지배가 확정되고 유비도 형주(荊州)
- 335) 아만(阿瞞) : 조조(曹操)의 어릴 때 이름.

- 336) 사해(四海) : 온 세상.
- 337) 검극(劍戟) : 칼과 창을 아울러 이르는 말.
- 338) 구주(九州) : 중국 고대에 전국을 나눈 9개의 주. 본문에서는 세상을 의미함.
- 339) 동여(董呂) : 동탁(董卓)과 여포(呂布)를 가리킴. 초선(貂蟬)은 서시, 왕소군, 양귀비와 함께 중국의 4대 미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삼국지연의』에서 왕윤의 수양딸로 등장해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함.
- 340) 저어하여 :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여.
- 341) 주유(周瑜) : 중국 삼국시대(三國時代) 오(吳)나라의 명신(175~210). 자는 공근(公瑾). 문무(文武)에 능하였으며, 유비의 청으로 제갈공명과 함께 조조의 위나라 군사를 적벽(赤壁)에서 크게 무찔렀음.
- 342) 교씨(橋氏) : 주유(周瑜)는 손견의 아들 손책과 함께 형주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이때 교공(橋公)의 두 딸을 포로로 생포하였음. 이들은 절세의 미인으로 언니 대교(大橋)는 손책의 아내가 되었고 동생 소교(小橋)는 주유의 아내가 되었음.
- 343) 조조(曹操) :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조(始祖)(155~220). 자는 맹덕(孟德). 황건의 난을 평정하여 공을 세우고 동탁(董卓)을 벤 후 실권을 장악하였음. 208년에 적벽(赤壁) 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여 중국이 삼분된 후 216년에 위왕(魏王)이 되었음.
- 344) 손책(孫策) : 중국 후한(後漢) 말의 무장(175~200). 손견 사후 군대를 이어받아 강남을 평정, 진무와 개발에 힘썼음. 조조와 원소가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한나라 헌제를 맞으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객의 칼을 맞고 죽었음.
- 345) 소열(昭烈) : 유비(劉備).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제1대 황제(161~223). 자는 현덕(玄德). 시호는 소열제(昭烈帝). 관우·장비와 결의형제하였으며,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맞아들임. 220년 조비가 한나라 헌제의 양위를 받아 위의 황제가 되자, 221년 그도 제위에 올라 촉한(蜀漢)이라 정했음.
- 346) 와룡(臥龍) : 제갈량(諸葛亮).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 자(字)는孔明(孔明). 시호는 충무(忠武).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曹操)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음.
- 347) 강태공(姜太公) : 중국 주나라 주(周)나라 초기의 정치가이자 공신.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제(齊)나라 시조가 됨. 본명은 강상(姜尙).
- 348) 주공(周公) : 중국 주나라의 정치가. 문왕의 아들로 성은 희(姬). 이름은 단(旦).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였고, 주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음.
- 349) 맹획(孟獲)을 칠금(七擒) : 칠종칠금(七縱七擒)의 유래. 제갈량(諸葛亮)이 맹획(孟獲)을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풀어준 고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편을 마음대로 요리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350) 기산(祁山)에 육출(六出) : 육출기산(六出祁山). 중국 촉(촉)나라의 諸葛亮(제갈량)이 祁山(기산)에서 여섯 차례나 魏(위)나라와 싸운 일.
- 351) 삼대(三代) : 하(夏), 은(殷), 주(周) 삼대를 가리킴.
- 352) 죽림칠현(竹林七賢) : 중국 위(魏)·진(晉)의 정권교체기에 부패한 정치권력에는 등을 돌리고 죽림에 모여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청담(淸談)으로 세월을 보낸 일곱 명의 선비. 곧 산도(山濤), 왕융(王戎), 유영(劉伶), 완적(阮籍), 완함(阮咸), 혜강(嵇康), 상수(向秀)를 가리킴.
- 353) 공순(恭順) : 공손하고 온순함.

- 354) 녹주(綠珠) : 중국 서진(西晉) 시대에 항해와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석송(石崇)의 애첩. 석송은 녹주(綠珠)를 총애하여 백장(百丈) 높이의 누각을 지었다고 함.
- 355) 형극(荊棘)에 누운 동타(銅駝) : 동타형극(銅駝荊棘). 구리로 만든 낙타가 가시덤불 속에 묻혀 있다는 뜻으로, 궁전이나 왕족들의 산소, 나라의 동산이 폐허가 됨을 비유하는 말.
- 356) 간과(干戈) : 방패와 창이라는 뜻으로, 전쟁에 쓰는 병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전쟁 또는 병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57) 팽택영 : 중국 동진(東晉)말기 부터 남조(南朝)의 송대(宋代)초기에 걸쳐 생존한 중국의 대표적 시인인 도연명은 항상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그의 나이 41세 때 팽택현(彭澤縣)의 현령(縣令)을 사임한 후 관계에 나가지 않았음. 이 때 지은 것이 유명한 <귀거래사(歸去來辭)>임.
- 358) 오두미 위하여 긴 허리를 굽힐소냐 : 도연명(陶淵明)에 얽힌 고사. 도연명이 팽택현(彭澤縣)의 현령(縣令)을 사임한 이유를 사전(史傳)에서는 상관의 순시 때에 출영(出迎)을 거절하고, “나는 5두미(五斗米)를 위하여 향리의 소인(小人)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라고 개탄하였다고 적고 있음.
- 359) 남북 :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중국 역사상의 시대구분의 하나(420~589).진(晉)나라와 수(隋)나라 중간시대에 해당하며, 이 동안 중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각각 왕조가 교체해서 흥망하였음.
- 360) 오열국(五列國) :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중국 한(漢)나라 때로부터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이르기까지 북방에서 이주하여 열여섯 나라를 세운 다섯 이민족(異民族) 오랑캐들. 곧 흉노(匈奴).갈(羯).선비(鮮卑).저(氐).강(羌)을 일컫음.
- 361) 오음(鳴泣) : 목메어 울.
- 362) 진패선(陳霸先) : 진패선(陳霸先, 503~559)은 중국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陳)의 초대 황제(재위 : 557~559). 자는 흥국(興國). 시호는 무제(武帝). 군인 출신으로 후경의 난을 진압함. 양나라의 황제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아 진(陳)나라를 세워 율령을 제정하고 불교를 숭상하였음.
- 363) 후정화(後庭花) : 악곡 중의 하나인 옥수후정화(玉壽後庭花)를 말함. 이는 진(陳)나라 후주(後主)가 주색(酒色)에 빠져 사치스런 누각을 짓고 날마다 비빈(妃嬪)들을 데리고 그 안에 놀면서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골라 가곡(歌曲)을 만든 것임.
- 364) 진후주(陳後主) : 중국 남북조 시대(南北朝時代) 진(陳) 나라의 마지막 임금. 환락에 빠져 정사를 태만히 하고, 임춘(臨春).결기(結綺).망선(望仙) 등의 가곡을 지어 비빈(妃嬪)과 즐기다가 수(隋) 나라 문제(文帝)에게 멸망당하였음.
- 365) 수(隋)나라 : 중국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서진이 멸망한 후 분열되었던 중국을 약 300년 만에 재통일한 왕조임. 초대 황제는 수문제(隋文帝) 양견(楊堅). 그러나 2대 황제 양제 때 폭정(暴政)으로 인해 멸망하고, 그 후 약간의 혼란기를 거쳐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 하였음.
- 366) 수양제(隋煬帝) : 중국 수나라의 제2대 황제인 양광(楊廣). 수문제 양견의 차남이고, 어머니는 문헌황후 독고씨임. 진시황보다도 성격이 더 포악하고 무자비하여 중국의 여러 황제 중 가장 폭군으로 손꼽히는 황제이기도 함.
- 367) 진부인 : 수문제(隋文帝)의 후궁이었던 선화부인 진씨를 가리키는 뜻함. 수문제의 아들인 양광인 선화부인 진씨를 범하였다가 폐위될 위기에 처했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새 황제로 등극하였음.
- 368) 다주고씨 : 수문제(隋文帝)의 부인이었던 ‘독고왕후’를 가리키는 뜻함. 독고왕후는 수양제에게 있어 유능하고 헌신적인 정치적 조언자였으나 질투가 매우 심하였다고 함.
- 369) 시부(弑父) : 아버지를 죽임. 양광이 아버지 수문제(隋文帝)를 죽인 것을 가리킴.

- 370) 이연(李淵) : 618년 수(隋)나라 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唐)나라를 세운 한고조(漢高祖).
- 371) 세민(世民) : 제세안민(濟世安民), 즉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는 뜻의 줄임말. 본문에서 이연(李淵)의 차남이자 당나라의 2대 황제인 당태종(唐太宗) 세민(世民)을 가리킴.
- 372) 태종(太宗) : 중국 당나라의 제2대 황제(598~649). 성은 이(李). 이름은 세민(世民). 제도를 정비하였고, 외정(外征)을 행하여 나라의 기초를 쌓았다. 중국 역대 황제 중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어 청나라의 강희제와도 줄곧 비교됨. 그가 다스린 시대를 정관의 치라 했음.
- 373) 봉래(蓬萊) : 중국 전설에서 나타나는 가상적 영산(靈山)인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 동쪽 바다의 가운데에 있으며,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374) 아미산(峨眉山) : 중국 사천성(四川省) 아미현(峨眉縣) 서남쪽에 있는 산. 산세가 뽀아있는 모양이 마치 화장한 푸른 눈썹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
- 375) 곽자의(郭子儀) : 중국 당(唐)나라 때의 명장(名將). 하남성(河南省) 정현(鄭縣) 사람으로, 분양왕(汾陽王)으로 봉해져서 곽분양(郭汾陽)이라고도 함. 현종 때 삭방절도사(朔方節度使)가 되어 안록산의 난을 토벌하여 하북(河北)의 10여 군을 회복하였음.
- 376) 광필(光弼) : 이광필(李光弼, 708~764). 중국 당(唐) 숙종(肅宗)과 대종(代宗) 때의 장수(將帥)로 안사(安史)의 난(亂)을 평정(平定)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음. 곽자의(郭子儀, 697~781)와 함께 '이곽(李郭)'이라고 불리며 명장(名將)으로 이름을 떨침.
- 377) 이적선(李適仙) :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 701~762).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 칠언절구에 특히 뛰어났으며, 이별과 자연을 제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음. 시성(詩聖) 두보(杜甫)에 대하여 시선(詩仙)으로 칭하여짐.
- 378) 두공부(杜工部) :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두보(杜甫, 712~ 770).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공부(工部)·노두(老杜). 율시에 뛰어났으며, 긴밀하고 엄격한 구성, 사실적 묘사 수법 따위로 인간의 슬픔을 노래하였음. 이백(李白)과 함께 중국의 최고 시인으로 꼽힘.
- 379) 이임보(李林甫) :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승상. 현종의 후궁에게 잘 보임으로써 출세를 시작하여, 19년 동안 항상 현종 측근에 있으면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左之右之) 했음. 아첨을 일삼고 유능한 관리들을 배척하여 당(唐)을 쇠퇴의 길로 이끈 인물로 여겨지고 있음.
- 380) 전권(專權) : 혼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름. 또는 그 권력.
- 381) 장구령(張九齡) :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의 재상(673~740). 재상 장열의 추천을 받아 중서사인(中書舍人), 중서시랑(中書侍郎)을 거쳐 재상이 되었음. 안록산이 위험인물임을 간파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며, 반대파인 이림보에게 미움을 받고 좌천되었음.
- 382) 요숭(姚崇) :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명상(名相). 당현종 제위 초기에는 요숭(姚崇)·송경(宋璟)·장열(張說)·장구령(張九齡) 등 명상의 도움을 얻어, 안으로는 민생안정을 꾀하고 밖으로는 국경지대 방비를 튼튼히 하여, 수십 년의 태평천하를 구가하였음.
- 383) 송경(宋璟) :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명상(名相).
- 384) 쇠운(衰運) : 점점 줄어서 약해진 운수.
- 385) 한문공(韓文公) : 중국 당나라의 문인·정치가인 한유(韓愈, 768~824). 자는 퇴지(退之). 호는 창려(昌黎), 시호는 한문공(韓文公).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변려문을 비판하고 고문(古文)을 주장하였음.
- 386) 경각(頃刻) : 눈 깜빡할 사이. 아주 짧은 시간.



387) 풍도(馮道) : 당(唐)나라 말기부터 오대(五代)십국시대 다섯 왕조를 거치면서 재상을 지닌 정치가 (882~954). 자는 가도(可道).

388) 취한 몸을 황포로 누가 엮었는고 : 송태조(宋太祖) 조광윤(趙匡胤, 927~976)이 왕이 된 일화. 후주(後週)의 장군이었던 조광윤이 어느 날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군사들이 그에게 천자의 황포를 입혀 왕으로 추대했다고 함.

389) 화산(華山) : 중국의 오악(五岳) 가운데 하나. 산시성(陝西省) 산인현(山陰縣) 남쪽에 있음.

390) 대송(大宋) : 송(宋)나라. 중국 역사상 당(唐)·오대십국(五代十國)에 이어지는 왕조(960~1279). 후주(後周)의 세종(世宗)이 죽은 뒤 그의 부장(部將)인 조광윤(趙匡胤)

391) 조보(趙普) : 중국 송(宋) 나라의 건국 공신. 처음에는 학문이 어두웠으나 송나라 태조(太祖)의 권고를 받은 뒤부터는 그의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고 함.

392) 한신(韓信) 팽월 죽은 일 : 유방(劉邦)은 한나라를 개국한 후, 개국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던 한신과 팽월이 세력을 키워 자신에게 도전할까 염려하여 이들을 죽였음.

393) 존상(尊尙) : 높이 받들어 숭배함.

394) 왕안석(王安石) : 중국 송(宋)나라의 정치가. 자(字)는 개보(介甫), 호(號)는 반산(半山). 신종(神宗) 때 재상이 되어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여 신법(新法)을 제창하여 부국강병을 꾀하였으나, 구양수(歐陽脩)의 반대로 실패하였음. 문장도 뛰어나 당송 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임.

395) 소동파(蘇東坡) : 중국 북송의 문인 소식(蘇軾, 1036~1101). 자는 자첨(子瞻). 호는 동파(東坡).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구법파(舊法派)의 대표자이며, 서화에도 능하였음.

396) 도통(道統) : 도학(道學)을 전하는 계통.

397) 주부자(朱夫子) :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 자는 원회(元晦)·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운곡산인(雲谷山人). 도학(道學)과 이학(理學)을 합친 이른바 송학(宋學)을 집대성하였음. 주자(朱子)라고 높여 부르며, 학문을 주자학이라고 함.

398) 영산에 두 숙려 : 정강의 변 때 금나라로 잡혀간 휘종과 흥종을 가리키는 뜻. 정강의 변은 금나라 군사가 북송(北宋)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휘종과 흥종 등 3,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으로, 이 결과 북송은 멸망하고, 흥종의 아우 고종이 임안(臨安)에서 즉위하여 남송(南宋)이 이루어짐.

399) 한세충(韓世忠) : 자는 양신(良臣), 산시성 옌안(延安)사람(1089~1151). 남송 때 방랍의 난을 진압하고, 금에 대항한 명장으로, 한세충은 악비(岳飛)와 유기(劉錡) 등과 함께 금군의 침입을 막아 송조(宋朝)의 명맥을 유지하고 없어진 영토를 회복하려고 힘썼음.

400) 묘략(妙略) : 매우 교묘한 꾀. 묘책(妙策)과 같은 말.

401) 악무목(岳武穆) : 중국 남송(南宋)의 장수인 악비(岳飛)를 말함. 충성심이 두터워 금(金)나라 군사들이 침입했을 때 여러 차례 적을 쳐 용맹을 떨침. 진회(秦檜)의 주화설(主和說)에 반대하여 옥에서 죽음.

402) 곽자흥(郭子興) : 중국 원(元)나라 말기 홍건군(紅巾軍)의 장수. 원나라 말기에 홍건도로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때 주원장이 그의 군문에 참가해 여러 번 공을 세웠음. 주원장의 협력으로 여러 차례 원군(元軍)을 격파했으나 내분이 그치지 않아 항상 근심하였다고 함.

403) 서달(徐達) : 자는 천덕(天德, 1332~1385). 중국 명나라의 건국 공신. 주원장의 부하로 통군원수, 강남행추밀원사, 좌상국 등을 지냈고 원군 토벌에서는 25만의 군세를 총지휘했으며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고 왕위에 오르자 무관(武官) 제일의 자리를 차지했음.

- 404) 필부(匹夫) :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내.
- 405) 명조(明朝) : 명나라 왕조. 1368년에 주원장이 원(元)을 몰아내고 세운 중국의 통일 왕조. 영락제 때 난징(南京)에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고 몽고와 남해에 원정하여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뒤에 전횡과 당쟁, 농민 반란이 끊이지 않아 1644년에 이자성(李自成)에게 망하였음.
- 406) 방효유(方孝孺) : 중국 명나라 초기의 학자(1357~1402). 1402년 연왕(燕王)
- 407) 구족(九族) : 고조 · 증조 · 조부 · 부친 · 자기 · 아들 · 손자 · 증손 · 현손까지의 동종(同宗)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408) 삼황오제(三皇五帝) : 중국 전설 속 상고(上古) 시대의 제왕. 일반적으로 삼황(三皇)은 복희씨(伏羲氏) · 신농씨(神農氏) · 여와씨(女媧氏) 혹은, 천황(天皇) · 지황(地皇) · 인황(人皇)을 가리키고, 오제(五帝)는 주로 황제(黃帝) · 전욱(顓頊) · 제곡(帝嚳) · 당요(唐堯) · 우순(虞舜)을 가리킴.
- 409) 당우(唐虞) : 중국 고대의 임금인 도당씨(陶唐氏) 요(堯)와 유우씨(有虞氏) 순(舜)을 아울러 이르는 말. 중국 역사에서 이상적인 태평 시대로 꼽힘.
- 410) 공극(孔劇) : 심하고 지독함.
- 411) 시속(時俗) : 그 시대의 풍속.
- 412) 패가(敗家) : (재산을 다 써서) 집안을 망침.
- 413) 주역(周易) : 유교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역경(易經)』. 주역(周易)이란 주(周)나라의 역(易)이란 뜻임. 역(易)은 ‘바뀌다, 변하다’란 뜻이며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것임. 8괘와 64괘, 그리고 괘사(卦辭) · 효사(爻辭) · 십익(十翼)으로 되어 있음.
- 414) 용렬(庸劣) :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함.
- 415) 복자(卜者) : 점쟁이.
- 416) 환술(幻術) : 남의 눈을 속이는 기술.
- 417) 왕왕(往往) :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따금.
- 418) 술업(術業) : 음양(陰陽), 복서(卜筮) 따위의 술법에 종사하는 일.
- 419) 천미(賤微) : 신분이나 지위 따위가 하찮고 천함.
- 420) 궁달(窮達) : 빈궁(貧窮)과 영달(榮達)을 아울러 이르는 말.
- 421) 단정(斷定) :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422) 수요단(壽夭短) : 수요장단(壽夭長短). 오래 삶과 일찍 죽음. 장수(長壽)와 단명(短命). 수요(壽夭).
- 423) 수유간(須臾間) : 잠깐. 삼시간. 짧은 동안.
- 424) 책력(冊曆) : 일 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날의 순서에 따라 적은 책.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